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은 아

2014년 8월

석사학위논문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문 성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강 은 아

2014년 8월

#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문 성 숙

강 은 아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8월

강은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년 8월

<국문 초록>

##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연구

강 은 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문 성 숙

오늘날 온갖 정보 매체가 사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여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각 내용 영역별로 매체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1-3학년 군] 쓰기 영역의 내용 성취 기준을 보면, 학습자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동료들의 반응을 경험해 보게 하는데 지도의 중점을 두고 있다.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하고 다양한 매체에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바람직한 매체 이용 태도를 형성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전자 매체 사용에 익숙한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특정 분야에 대한 글만 골라 읽게 되어 편독하는 습관에 길들여지기 쉽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습득하려면 능동적인 읽기 능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올바른 독서 태도와 독서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학생이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문학 수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 등 평가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문학수업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문학작품을 자신의 삶이나 경험과 연관시켜 감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의 하나로 독서신문 만들기를 통한 독서지도 방법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독서신문 만들기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은 신문 매체의 이해를 돕는 과정을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다. 매체 텍스트를 활용하거나 매체 제작 활동을 할 때 다루게 될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구성주의를 제시하였고, 협동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독서신문 만들기 독서지도

\* 이 논문은 201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안을 제안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더불어 정보 매체인 신문에 대한 이해를 높여 효과적인 독서수업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신문 이해 학습으로 정보 매체로써 신문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된 학생들은 신문 제작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연구자는 활동 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활동의 적합성, 인지적·정의적 영역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제안하고자 하는 독서지도 방안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에서 설문지 결과 분석이나 활동 결과물 대한 교사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 기간이 짧아 다양한 작품을 대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여 거론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교육과정은 2007년부터 수시개정 체제로 바뀌면서 교과서 제작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짧은 제작기간으로 인한 교과서의 내용 오류 등은 부실교과서 논란으로 이어져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변화의 가속화로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교육을 통한 인간의 사고와 인식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급격한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암기 위주의 지식교육에서 학습자의 구체적 수행을 강조하는 학습 활동으로의 전환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하겠다. 독서교육도 타학문과의 연계를 통해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4
3. 연구 방법 .....	7
II. 이론적 배경 .....	10
1. 구성주의 학습이론 .....	10
2. 협동학습 .....	15
3. 독서교육 .....	20
III.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	25
1. 매체교육의 이해 .....	25
2. 교수·학습지도 계획 .....	30
IV.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실제 .....	49
1. 교수·학습지도 과정 .....	49
2. 과정 및 결과 분석 .....	66
V. 결론 .....	83
참고 문헌 .....	85
Abstract .....	88

## 표 목 차

〈표 1〉 교수·학습지도 모형 .....	31
〈표 2〉 교수·학습지도 계획 .....	31
〈표 3〉 신문의 기능 .....	35
〈표 4〉 모듈 역할 분담표 .....	43
〈표 5〉 독서신문 활동 형식과 내용 .....	44
〈표 6〉 모듈활동 평가지 .....	46
〈표 7〉 독서신문 평가지 .....	47
〈표 8〉 C 중학교 2학년 학급편성표 .....	49
〈표 9〉 「아기장수 우투리」 교수·학습 계획 .....	51
〈표 10〉 교수·학습과정안 1차시 .....	53
〈표 11〉 교수·학습과정안 2차시 .....	54
〈표 12〉 교수·학습과정안 3차시 .....	57
〈표 13〉 기사문 쓰기 .....	58
〈표 14〉 4컷 만화 그리기 .....	59
〈표 15〉 교수·학습과정안 4차시 .....	60
〈표 16〉 교수·학습과정안 5차시 .....	62
〈표 17〉 교수·학습과정안 6차시 .....	63
〈표 18〉 교수·학습과정안 7차시 .....	63
〈표 19〉 활동평가 설문지 .....	76
〈표 20〉 활동의 적절성 .....	77
〈표 21〉 활동의 인지적 효과 .....	78
〈표 22〉 활동의 정의적 효과 .....	79
〈표 23〉 평가결과 비교 .....	80
〈표 24〉 평가 비교 분석 .....	81



## 그림 목차

<그림 1> 신문 1면 구조 .....	36
<그림 2> 신문 제작 과정 .....	40
<그림 3> 신문의 크기 .....	42
<그림 4> 신문 이해하기 PPT .....	56
<그림 5> 모둠평가 활동 .....	64
<그림 6> 상호평가 활동 .....	65
<그림 7> 활동 결과물 .....	67
<그림 8> 독서신문 편집후기 .....	68
<그림 9> 독서신문 1면 .....	70

# I. 서론

## 1. 연구 목적

정보가 곧 경쟁력이 된 시대이다. 정보 습득 능력이 현대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구나 한두 번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판단력을 잃고 헤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정보 매체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정보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정보의 빈곤함이라는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디지털 환경과 스마트 기기에 이미 익숙해진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특정 분야의 내용만 골라 취하게 되는 정보 편독 습관이 생기게 된다. 특정 영역에 편향된 태도는 삶의 문제를 여러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보화 사회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에 비판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국어과 교육과정도 각 내용 영역별로 매체활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1-3학년 균] 쓰기 영역의 내용 성취 기준을 보면,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고 동료들의 반응을 경험해보게 하는 데 지도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습자에게 자신이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읽은 글을 발표하게 하고 내용이나 느낀 점 등을 동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소통으로써의 읽기에 중점을 두면서 다양한 매체에 드러나는 내용에 대해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나누게 하여 바람직한 매체 이용 태도를 형성하도록 제시하는 것이다.

올바른 독서 태도와 독서 능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많은 학생들이 문학수업을 어려워하거나 책 읽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시험 등 평가제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모든 수업이 상급학교 입시에 초점을 맞춰 놓고 구성된다.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

생의 관심이 교과 성적이나 학습 평가에서 벗어나기 힘든 게 현실이다. 정규 수업 시간에 독서 활동을 진행하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는 구조로 되어 있다. 막상 시도한다고 해도 학습 진도율을 맞춰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활동으로 끝나고 만다. 문학작품을 읽는 즐거움을 알고 독서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면 학생의 삶이나 경험과 연관시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이 생길 수 있게 일정 시간을 독서시간으로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 환경을 고려할 때 정규 수업 시간보다는 재량활동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진다.

독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정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독서 활동 전후에 형성평가나 읽기 학습지로 학생의 독서 능력을 평가한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결과중심의 평가 방법이 독서 과정을 획일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학습자의 반감을 일으켜 독서에 흥미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오게 하는 과제는 보고서 작성과 같은 부담을 느끼게 하여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떨어뜨린다.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활동은 좋은 책을 읽고 감상이나 생각 써보기에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학습 능력이 높아지고 관심 영역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한 학기에 두세 번 정도는 학습자의 능력을 도약시킬 자극과 동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독서를 통한 학습자의 간접 경험을 실생활에 적용하게 해보는 활동으로 독서신문 제작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은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지도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는 독자가 책을 읽은 후의 감상을 신문의 기능과 성격 그리고 특징 등을 고려하여 신문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창작활동으로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독서신문 제작을 다룬 대부분의 선행연구자들은 독서 활동으로 신문 만들기를 적용한 실험반과 신문 만들기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학수업을 한 비실험반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해 왔다. 주로 독서신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 가능한 활동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이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이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고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독서 활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독서신문 제작 활동에 신문매체에 대한 이해 학습을 접목시켜 학생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독서지도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학생이 자신의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신문 만들기를 할 때 정보 매체로서의 신문의 기능이나 역할을 이해하게 된다면 신문의 소통 방식을 고려하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길러져 정보를 습득하거나 생산하는 정보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본다.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적응하게 하려면 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연구를 통해 학습자에게서 기대되는 효과를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다. 먼저, 문제해결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유형의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은 자신의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며 편협한 사고나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동료들과 함께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책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받게 되고 점차 독서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매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될 것이다. 신문에 대해 학습하면서 학생들은 신문의 구성 의도와 내용 구성 방식에 따라 전달하려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객관적 관점, 작성자를 명확히 밝힌 글, 정제된 언어표현 등이 언론매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체의 표현 방식에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보를 다루는 사람의 윤리와 책임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정보의 질과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된다.

셋째, 학습자 스스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학습자 중심의 활동은 학생을 능동적인 학습자로 만든다. 협동학습 구조에서 모든 학생은 동등한 발표 기회를 가진다. 학생은 동료들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자신감을 얻고 집단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동원하게 된다. 학생은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발전 가능성이 확대되어 장래 직업이나 진로 결정에도 도움이 될 거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민주 시민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활동은 모두 동료끼리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협동학습 구조로 진행된다. 모두 구성원은 과제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자의 능력과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역할을 분담한다. 모둠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토의와 토론을 거쳐 해결하게 된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은 민주사회의 기본 바탕이다. 학생들은 협동학습을 통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써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매체 환경의 변화는 읽기·쓰기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 읽기·쓰기 능력을 기른다면 정보의 습득과 활용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여겨진다.

## 2. 선행연구 검토

독서신문은 독자가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느낌을 신문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고 결과물을 배치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국어시간에 학습한 매체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을 활동에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다루어지는 교과 학습 내용을 실생활과 연관 지어 학습자가 경험할 기회가 반복적으로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이끌어 내어 학업 흥미도와 성취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서신문 제작에 관한 연구는 목적이나 교수·학습방법 등을 달리하며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밝힌 공통적인 결론은 독서신문 제작 활동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sup>1)</sup> 여기서는 독서신문 만들기 교수·학습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정기철(2006)은 독후감 쓰기가 학생의 독서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 창의적인 표현 방법으로 독서신문 만들기를 제안하였다.<sup>2)</sup> 다양한 작품을 신문의 구성 요소에 적용하여 활동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 실제 수업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1)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지적 영역 평가는 읽기와 쓰기 능력을 검사한 것으로 이해력, 분석력, 지식 등을 측정한 것이다. 정의적 영역의 평가는 협동심, 적극성, 성실성 등 주로 학습자의 흥미와 태도 관련 검사이다.

2) 정기철(2006), 『창의력 계발을 위한 독서 지도법과 독서신문 만들기』 4판, 역락.

김영경<sup>3)</sup>은 국어수업에 적용 가능한 독서지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지도 모형을 제안하고 수업에 적용한 것이다. 그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반은 연구자가 제안한 교수·학습 모형을 적용하였고, 비실험반은 텍스트 위주의 강의식 수업형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험반의 수업 진행 과정과 결과물, 평가내용, 프로그램의 효과만을 정리하여 연구를 마무리하고 있다. 학교 수업에 적용 가능한 활동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비교 집단에는 어떤 차별화를 두었는지 다루지 않아 연구의 타당성을 감소시켰다고 보여 진다.

김원진<sup>4)</sup>은 김영경(2002)의 연구를 토대로 소설 수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 8차시의 수업 과정을 기술하였다. 소설신문 제작 활동을 적용한 실험반과 교사 중심의 일반적인 소설 수업을 진행한 비실험반의 수업 진행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 번의 실험으로 작품 이해도와 신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점과 별다른 이론적 배경 없이 신문활용교육(NIE)에 대한 내용만을 영역별로 세세하게 다루어 놓았다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소설신문 제작 활동은 신문을 활용한 학습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되도록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한다.

조혜숙<sup>5)</sup>의 연구는 독서신문 만들기에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그는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두 학급을 실험반과 비실험반으로 나누고 5편의 단편소설 작품을 선정하여 총 25차시로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서술형으로 작성된 학생들의 반응에서 긍정적인 내용도 많았지만 한 학기에 5번의 활동이 부담된다거나 매번 소설을 읽고 신문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효과가 증명된 교육 방법도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종숙<sup>6)</sup>은 독서신문 제작 활동 양상을 살피고 그 활동이 독서교육에 주는 이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확인을 위해 실시한 인지적·정의적·반응적 측면의 검사 방법은 앞의 다른 연구자와 다르지 않다. 그는 세 차례의 활동 결과물에 나타난 독서신문의 내용이나 형식의 변화를 참신하고 창의적인 현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독서신문 제

3) 김영경(2002), 「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4) 김원진(2005), 「소설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 지도 방안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5) 조혜숙(2005), 「독서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 교수-학습 방법」,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6) 신종숙(2006), 「독서신문 제작 과정과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작 활동을 거듭하면서 학생들의 독서 내용이 풍부해지고 결국엔 고등적 사고 능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고등적인 사고 능력의 발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행동이나 학습의 반복에서 오는 학습자의 숙련도, 혹은 학습에 대한 익숙함 정도로 해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상민<sup>7)</sup>의 연구 목적은 독서신문 제작 활동이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교육적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그는 소설교육의 평가가 교사중심의 분석과 해설, 문제풀이로 흐르고 있는 수업 방법을 현실적 문제로 보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2개 반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쓰기 통합 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활동 후 역할 기록지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 결과물에 대한 자기 평가와 학습자 간 상호평가를 상, 중, 하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여러 가지 검사 자료를 제시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수치화한 노력은 본받을 만하다. 그러나 연구자가 앞서 제기한 교사중심의 분석과 해설이라는 평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영란<sup>8)</sup>은 학습자가 소설을 감상한 후 신문이라는 매체 형식을 빌려 그 틀에 맞게 감상 내용을 펼쳐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신문 이해 과정을 앞서 다루고 있지만, 극히 개인적인 범위<sup>9)</sup>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하여 학생들이 신문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해야 한다. 그가 연구에서 신문 이해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으로 미루어, 어느 정도 매체 이해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각 모둠에게 신문 이름을 정하게 하면서도 전체 신문에 들어갈 분량을 나누어 한 모둠에 두 가지씩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전체 모둠의 결과물을 모아 하나의 독서신문을 완성하도록 한 것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활동이라면 모둠마다 하나의 신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류수정<sup>10)</sup>은 독서신문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이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교육 향상 방안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는 교사가 신문 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학습 과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

7) 이상민(2007), 「독서신문 활용을 통한 소설 교수-학습 방안 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8) 이영란(2008), 「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지도 방법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9) TV 프로그램 편성표 보기, 라면 먹을 때 냄비 받침으로, 영화 정보 보기 등을 예시로 다루고 있음.

10) 류수정(2011),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교육 향상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어 있고 학생들의 반응에 초점을 둔 평가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효과 확인을 위한 내용 이해 문제를 학생들에게 풀게 하지 않은 점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독서교육의 효과가 점수로만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의 목적은 독서 수업에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부분의 연구는 독서신문 만들기 방법을 적용한 실험반과 적용하지 않은 비실험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적용하지 않는 반은 교사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여 문제풀이식 확인 학습이나 독후감 쓰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이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주장한 독서신문 만들기 효과를 바탕으로 신문매체에 대한 이해 과정을 기존의 독서 활동에 적용하여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구체적인 독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언어를 사용하는데 맥락<sup>11)</sup>과 문화적 배경은 중요하다. 의사소통이나 기능적인 면에 치중된 지금까지의 교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도외시되어 왔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를 더 이상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도구, 문화의 도구, 공동체적 연대의 도구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어교육과 관련하여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다룬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부분 독서 후 학습자의 감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매체교육을 독서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으로써 중학생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독서신문 제작 활동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학습자가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이나 읽은 후의 감상을 신문 형식으로 표현하려면 작품의 분석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앞서 제시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이 책에 대한 이해를

11) 발화(發話)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문화적 요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학 사전』, 대교출판, 1999, p.231.



깊고 감상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위한 배경지식으로 신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신문 이해 학습과정을 독서 수업과 연계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 관련 독서 활동으로 국어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독서지도 수업 모형에 적용해 보았다. 독서지도 방안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도내에 소재한 C 중학교 2학년 3개 학급 74명을 대상으로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 동안 국어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신문 이해 학습을 적용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진행하였다. C 중학교의 2학년 국어교과 진도에 맞춰 두산동아 국어교과서③(이삼형 외)의 ‘대단원 4’에 실린 작품 「아기장수 우투리」 설화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기 중 예정된 컨설팅 수업에 대비하여 세 개 학급 모두 4~5명 단위로 6개의 학습 모듈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작품을 읽고 내용 이해하기 수업을 진행한 후 모듈끼리 독서신문을 만들게 하였다. 1반과 3반은 신문 이해 학습을 적용하고 2반은 곧장 편집회의를 하게 한 후 신문을 만들도록 하였다. 학생들을 관찰하여 활동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수업은 주제 결정하기 → 활동 계획하기 → 탐구 및 표현하기 → 정리 및 평가하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활동 후에는 설문지를 통해 활동의 적절성, 인지적·정의적 영역을 조사하여 이 활동이 실제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독서신문 제작은 책을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생각 등을 신문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감상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쓰기 활동이다. 신문의 형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상 작품이나 만드는 사람의 수는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정할 수 있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어 내어 자기주도적인 읽기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길러줄 수 있어 학생들이 사회 변화에 조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기사문 쓰거나 광고 만들기 등은 학생들이 이전에 학습한 분리된 수업 내용들을 독서수업에 적용하여 신문 형식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다.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습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독서신문을 표현 방법의 다양성을 갖춘 독후 활동으로 보았다. 단지 감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문집이나 게시판, 독서 활동 기록지 등 다른 형식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학생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매체 제작 활동을 진행한

다면 매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매체 환경이 정치·사회·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이 신문의 표현 방법을 활용한 수업에만 머물지 말고 매체 이해 과정을 통해 사회의 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에 적용 가능한 이론 정립과 여러 연구자의 노력으로 얻어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인지적·정의적·반응적 측면에서 확인된 활동의 효과 등은 필자의 연구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독서 활동에 매체 학습을 접목시킨 독서지도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의 장점은 신문을 구성하는 텍스트 형식의 다양성에 있다. 다양성은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시켜 학습 활동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요소이다. 신문 이해 학습은 학생들에게 신문 제작 활동의 의미를 알게 하여 신문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신문 이해 학습과정은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의 목적에 따라 내용 구성이나 수업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문의 개념을 소개하고 신문의 구성 요소를 분리해 각 요소의 특징을 가르쳐도 좋을 것이다. 중학생들에게는 신문의 기능과 함께 신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신문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다루면서 신문의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적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게 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을 통해 기사나 광고의 목적과 숨겨진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독서 능력은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 독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수많은 텍스트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문학을 통해 타인과의 갈등이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발견하게 된다.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독서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구성주의 학습이론

지식 기반 사회의 교육 이론으로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성주의적 교육이란 인간의 지식 형성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사고의 틀이라고 볼 수 있다.<sup>12)</sup>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따르면 교사는 학생이 교육을 통해 유의미한 정보, 학생에게 실제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가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의 효과나 성과는 학습자 개인의 학습 능력과 능동적인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교육공학의 교수설계 분야에서 구성주의가 시작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구성주의에 대한 교육 관련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심분야에 따라 각각 다르게 용어가 사용되어 오고 있다.

김관수(2000)는 개인적 구성주의로 분류된 급진적 구성주의는 피아제의 인식론을 해석한 것이라고 하였다.

급진적 구성주의가 교육에 적용될 때는 교수이론이 아닌 학습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구성주의가 시사하는 바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교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가’라는 관점이다.<sup>13)</sup>

강인애(2003)는 구성주의를 ‘학습자 중심적 학습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성주의는 구체적 교수·학습상황에 적용되는 것을 최종적 목표로 삼는 학습이론이다. 구성주의 인식론의 요점은 ‘공동체적 지식의 개별적 구성’이다. 집단 내 대화를 통한 학습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이 사고를 촉진시켜 학습자의 지식 구성과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때 교사는 안내자이면서 동료, 조력자이면서 촉진자로서 학습자의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4)</sup>

12) 김관수 외(2000),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p.37.

13) 김관수 외(2000), 위의 책, p.170.

14) 강인애(2003),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문음사, p.13.

배영주(2005)는 구성주의를 인간이 수행하는 삶의 과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지적인 안목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습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사는 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학습의 이론일 수 없다’<sup>15)</sup>고 주장하였다.

손민호(2005)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객관주의를 비롯한 이전의 전통적 교육이론에 대한 반성과 이를 교육 이론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았다.

교육이론에서 통용되는 구성주의는 그 입장이나 접근이 광범위하고 이질적이어서 일단의 합의된 내용을 찾기 쉽지 않다. 다만 공통된 관심사로서 집단적 혹은 개인적 지식을 생산하는 과정과 조건에 대한 이론적 반성을 반영한 것이다.(중략)

구성주의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활동’이나 ‘실천’으로 바꾸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대답을 찾을 길이 요원하다.<sup>16)</sup>

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구성주의를 학습이론이라기보다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에 관한 인식론으로 다루고자 했다.

교육영역에서는 주로 피아제의 인지적 혹은 개인적 구성주의와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인지적 구성주의로 대표되는 피아제는 삶의 과정을 적응적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의 적응능력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인간의 생물학적 발달과정과 동화와 조절을 통한 인지적 평행화의 과정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지식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영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피아제의 인지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의 고유한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는 상대적인 지식만이 존재 가능하다고 본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교육의 주체를 학습자로 보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교사가 학생들을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한다.

- 학습자의 배경지식 : 학습의 양과 질은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달려 있다.
- 실제적인 학습의 과제들 :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개념과 학생들의 삶 사이의 관련성을 알기 위해 학생들은 실제 세계와 연관되어 있는 학습의 과제들이 필요하다.
- 사례와 표상 : 학생들은 이해를 구성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경험으로부터 그 이해가 타당한지

15) 배영주(2005), 『자기주도학습과 구성주의』, 원미사, p.91.

16) 손민호(2005), 『구성주의와 학습의 사회이론』, 문음사, pp.14~15.

를 판단한다.

- 상호작용 : 질문, 대답, 토론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sup>17)</sup>

비고츠키로 대표되는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의미 구성의 주체를 사회로 본다. 개인의 이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증진되고 긍정적 상호의존성에 의해 지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지식은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지만 학습은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 문화적으로 형성된다’<sup>18)</sup>는 관점이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집단의 상호작용과 그 맥락적 상황에 의하여 지식이 형성된다는 입장으로 피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와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의 구성에 있어서 인간의 내면화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피아제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인간의 활동은 선천적으로 사회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학습이란 인간이 사회적 행동들을 확인하고 교실활동들을 설계하는 활동의 공동체로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다는 것은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둘째, 학습이란 이전의 경험에서 구성된 지식들과 새로운 경험이 비교되는 과정이다.

셋째, 학습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 지식이 적용되거나 강화되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개인의 지식구성에 있어서 토대를 형성한다.

넷째, 학습 환경에서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공유된 의미들은 공통의 지식 또는 공유된 지식으로서 발전되어 간다.

다섯째, 학습은 사회적 활동들과 상호작용들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인 공동체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sup>19)</sup>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은 학습활동을 어떻게 조직하고 실행할지, 학생들을 어떻게 동기화 할지, 학습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와 같은 교수의 전통적인 질문을 교사가 고려해야 한다고 제의하였다.<sup>20)</sup> 이와 관련하여 교육에서 사회문화 학습이론, 학습자 공동체로서의 교실,

17) Paul D. Eggen · Donald P. Kauchak(2006), 임청환 · 권성기 옮김, 『교사를 위한 수업전략』, 시그마프레스, p.14.

18) 김관수 외(2000), 앞의 책, p.37.

19) 김관수 외(2000), 위의 책, pp.37~38.

인지적 도제, 상황학습이론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가들은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하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이 모든 학생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삶의 방식이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교육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 어떠한 교육이든 근본 목적은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습자의 경험을 중시하는 구성주의적 사고방식은 기존 교육관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학교육에서도 작품 감상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직도 일관된 작품 해석과 동일한 주제와 줄거리 찾기를 문학교육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교사는 표현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암기라도 해 주기를 바란다. 이러한 방식이 읽기에 거부감만 키우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성적과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작품에 대한 감상보다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정답 찾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상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학교육은 구성주의적 동향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인 연계, 새로운 문학교육의 변화 동향을 반영, 사고력 교육·도덕 교육의 장으로서의 문학교육, ‘목표-수업-평가’가 일치하는 하나의 일관된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sup>21)</sup> 문학 작품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는 독자이다. 문학교육에서 학습 활동 과정을 통해 얻은 학생의 결과물이 곧 문학 작품의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문학 수업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읽기와 쓰기 그리고 말하기와 듣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활동이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구성주의 문학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해 인지적 도제와 융통성, 컴퓨터와 같은 공학적 매체 등의 수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구성주의 문학교육은 집단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등 학습자의 경험을 통한 지식 습득과 내면화를 강조한다.

이상구는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0) 신중호 외(2012), 『교육심리학 : 교육 실제를 보는 창』, 학지사, p.343.

21) 이상구(1998), 「학습자 중심 문학 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논문, p.102.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이란 기존의 가치관 중심, 텍스트 중심의 문학교육 체제에서 이루어지던, 교사 중심, 텍스트 중심, 결과 중심, 주입식 교육, 암기 위주의 학습 형태에서 벗어나,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등장시키려는 현대 교육적 동향의 문학의 교육적 실천을 지칭하는 개념이다.<sup>22)</sup>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학습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 지을 것을 강조한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독자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작가의 창작 의도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문화적 상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작가와 독자와의 공통 맥락과 작품을 창작할 당시의 맥락, 현재의 맥락 등을 고려하며 작품을 읽는 것은 독자의 주체적인 감상에 도움이 된다. 독후 활동으로써 독서신문 제작 활동은 문학 작품을 읽고 난 후 내용이나 감상을 신문의 특정에 맞게 현실 상황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이다.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위해 학생들은 작품의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창작 당시와 현재의 시대적·문화적 차이를 비교하며 내용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비고츠키는 아동의 인지발달이 어른이나 혹은 더 능력 있는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보고 근접발달영역<sup>23)</sup>을 주장하였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모둠을 나누어 진행된다. 성격이나 능력이 제각각인 모둠 구성원들은 언어를 매개로 지적 자극을 주고받게 된다. 모둠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끼리의 상호작용은 지식의 수준이나 범위 그리고 활동 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학생에게 간혹 잘못된 개념이 생겨날 수도 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개입하여 지식 구성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학습 내용이나 과정 등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독서활동을 통한 학습자의 경험은 책에 대한 감상을 내면화하는 데 도움이 되어 구성주의에서 지향하는 학습자 중심 문학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한다. 연구자는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평소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는 입장에서 좀 더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법을 수립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2) 이상구(2002),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p.142. : 이상구(2006),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p.240.

23) 근접발달영역: 아동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성인이나 뛰어난 동료와 함께 학습하면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한다. : 성태제 외(2012), 『최신 교육학개론』, 학지사, p.132.

## 2. 협동학습

구성주의 학습이론은 학급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의 협응을 중시한다.<sup>24)</sup> 교사는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 환경을 조성하며 학습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협동학습을 제안하고 있다. 협동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학습 방법의 하나이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 자리 잡은 협동학습은 기존의 경쟁 구도 위주의 수업방식에서 탈피하려는 교육계의 대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협동학습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신헌재(2003)는 “협동학습은 학습자들이 작은 모둠을 구성하여 각자 일을 나누어 맡은 뒤 서로 도우면서 함께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그 달성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게 하는 학습구조”<sup>25)</sup>라고 하였다. 그는 협동학습을 통해 바람직한 의사소통 능력과 태도 그리고 남과 더불어 사는 시민으로서의 품성과 능력을 다질 수 있다고 보았다.

정문성(2006)은 경쟁학습 구조의 대안으로 협동학습 구조를 다루고 있다. 그는 상식적으로 사회가 협동이므로 학교도 협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협동학습이 사회변혁과 자아실현이라는 변혁의 관점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상의 주장에서 공통된 내용은 협동학습이 소집단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공동의 학습과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집단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써 학습부진을 개선하여 성공적인 학습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이다. 전성연은 “이러한 구조는 전체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업 과정에 소집단 활동을 맞춰 넣는 것으로 전체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sup>26)</sup>라고 하였다.

협동학습은 전통적 모둠학습과 혼동되기도 한다. 전통적인 모둠학습에서는 활동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이 발생하기 쉽다. 그렇게 되면 몇몇 학생에게만 모둠 활동 결과에 대한 책임이 몰리게 된다. 협동학습 구조에서는 개인의 성공 여부가 집단의 성공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모둠 구성원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집단 내에서 학생은 타인의

24) 이상구(2002), 앞의 책, p.23.

25) 신헌재 외(2003),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26) 전성연 외(2010), 『협동학습 모형 탐색』, 학지사.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하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가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러한 위치를 확보한다는 것은 집단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좋은 자아개념이 형성되기도 한다.

협동학습은 모든 학습자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기본 철학으로 삼는다. 실제 학교 수업시간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교사는 학습 목표에 적합하도록 모둠이나 집단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모둠 구성원들은 학습 목표에 이르기 위해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이 실현 가능해진다.

협동학습은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실천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고츠키는 아동이 일정한 양의 비언어적 사고와 비지시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중학생 정도가 되면 추상적인 단어 형성이 가능하다. 근접발달영역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실제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존중하는 태도로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소집단 모둠 단위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토의나 토론을 통해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평가 등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학생 중심의 수업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학습 주도자로서의 책임감과 사고 촉진의 활성화 그리고 학습에의 몰입 등이다.

일반적으로 협동학습은 학습자 개인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학습 구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아우를 수 있는 합리적인 학습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경쟁학습, 개별학습과 더불어 협동학습은 21세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다.

협동학습 구조에서 학생들은 집단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되어 협동심이 길러진다.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해 타인의 입장에서 사고하게 된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한 동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도 한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점을 조절해나가는 실질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협동학습 방법이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보상과 개별책무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협동학습 구조

에서 집단목표와 개별책무성이 구조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학생이 집단 전체의 학습을 혼자서 하게 되거나 하위 능력 학생들이 집단 활동에서 무시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협동학습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협동학습은 학습자의 행동 방향을 결정하게 하거나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 내적 동기 발달은 지속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협동학습 자체를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로 본다면 보상 유무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겨진다. 개인이 혼자 학습 문제를 해결할 때, 성적 향상이나 상벌 등 외부 자극이 없다면 학습자는 쉽게 학습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동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동료의 의견을 수용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는 기존 지식의 확장을 경험하거나 전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도 한다.

협동학습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학습 동기, 긍정적 학습 태도, 동료 및 대인관계, 자아 효능감, 교과에 대한 학습 태도, 친사회적 태도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모둠 단위로 독서신문을 만드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인정·통제·성취의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 학생들은 활동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에 따르는 것을 더욱 가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역할 분담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토의와 토론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협동학습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사에게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제시해 준다.
- 2) 수업 중에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 3)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 4) 고급 사고력을 길러 준다.
- 5) 원만한 대인관계 기능을 익힌다.
- 6) 지적 모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7)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로 발전할 수 있게 한다.
- 8)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게 한다.

- 9) 소속감을 심어준다.
- 10) 숨은 재능들을 밝혀낸다.
- 11) 독립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한다.<sup>27)</sup>

교사는 학생들에게 소통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학생이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과 상호 작용하며 사고를 키워갈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교육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학습 진행 상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칫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분위기의 의도를 오해하여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하는 것이 좋다.

정문성은 존슨과 존슨의 의견을 인용하여 협동학습에서 요구되는 여덟 가지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사람이 아니라 의견을 비판한다.
- 우리는 모두 함께 존재한다.
- 모두가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동의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들어준다.
-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질문한다.
- 문제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입장을 바꿀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모든 모두미를 돕는다.<sup>28)</sup>

이외에도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칙을 정하게 해보는 것도 협동학습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협동학습 구조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완수 정도가 집단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친다. 모둠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지고 모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제 수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의 주체라는 인식을 하게 되어 자기주도적 활동을 하게 된다.

협동학습 활동은 집단 구성원끼리의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다. 학생은 자신의 말과 행

27) 정문성(2006),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pp.52~56에서 재인용.

28) 정문성(2006), 위의 책, pp.27~37.

동에 대한 동료들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거나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타인의 입장에서 자기 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바라보게 되어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스스로도 반성하게 된다. 배려한다는 것은 곧 주체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길러지게 된다.

정문성은 협동학습 구조에서의 구성원은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개인의 성공여부가 집단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목표 인식이 뚜렷하고 개인이나 집단 모두 책무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sup>29)</sup>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모둠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과제를 분담하고 규칙이나 절차를 정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맥이 닿는다고 하겠다. 개인의 인성과 사회 공동체의 가치관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감정이나 상대적인 해석이 구성원의 가치관에 의해 가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협동학습은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돌려 주고, 학생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독서신문 만들기는 모둠 활동이면서 역할을 나누어 학습자가 개별적으로 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이야기를 재구성하기 위해 작품을 반복적으로 읽게 되고 다양한 표현을 위해 작품을 분석하게 된다. 모둠 전체의 의견이 바탕이 되지만 말은 역할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어 학생들이 활동에 흥미를 갖게 하여 능동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태도는 작품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독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평가를 위한 읽기가 아닌 다양한 표현을 위한 읽기 활동은 독서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을 줄여 주고 과제 수행을 도와 성취감을 맛보게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협동학습은 소집단으로 구성된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공동의 학습 과제나 학습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모둠 단위의 독서신문 제작 활동에 적합한 학습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동료들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바람직한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다. 협동학습 경험은 학생이 사회 갈등을 이성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9) 정문성(2006), 앞의 책, pp.30-33.

### 3. 독서교육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종이책의 종말을 예고한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독서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최첨단 매체사회의 이점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독서는 한정된 시간과 제한된 활동 범위 내에서 간접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는 활동이다. 인간의 경험을 확장시키고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서 경험은 급격한 사회의 흐름을 탐지하고 정보와 지식의 변화와 생성에 제대로 반응하게 한다.

이경화(2004)는 읽기 또는 독서라는 말의 뜻은 독자가 글을 통해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까지 부여하는 넓은 의미의 ‘의미구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고급 사고과정을 독서라고 보았다.

독서란 문자로 기록된 글을 읽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독서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sup>30)</sup>이다. 독자는 작품이나 텍스트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이나 지식, 경험 등에 기초해서 나름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구조화하게 된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의미구성은 자신이 소속된 사회집단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해가는 과정에서 집단의 문화와 전통 사상 등에 영향을 받고 반대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도 이러한 맥락들이 무시될 수 없다. 작가가 글이나 책을 쓰는 일을 창작활동으로 볼 때 독서는 독자가 글이나 책을 읽고 스스로 의미를 구성해가는 창작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는 필자의 의도나 텍스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로부터 생겨나게 된다.

독서는 언어를 매개로 작가와 독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독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교육활동은 학습자의 언어사용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된다. 언어사용능력은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독서를 통한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발달이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면 언어 사용 능력은 이에 비해 사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다. 공동체의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데

30) 신현재의 5인(2001),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방안』, 박이정, pp.16-17.

바탕이 되는 것이다. 구성원으로서 소속된 집단의 표현방식을 익힌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습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로써 집단역사의 전승자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독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는 학부모와 교사가 이전보다 많아졌다. 2013년 국민독서실태를 조사한 보고서<sup>31)</sup>에 따르면 성인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간 독서량이 많을수록 학생 시절에 부모나 교사로부터 독서 권장이 있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책을 읽은 학생은 바람직한 독서 습관이 형성된다. 독자는 다양한 읽기 자료를 통해 어휘력, 표현력과 더불어 종합적 사고능력이 향상된다. 개인의 독서 능력은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내는 바탕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책이나 신문 읽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천경록은 독서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독서교육은 국어과 읽기영역의 지도와는 구별하여, 범교과적인 활동으로 교과서 밖의 다양한 독서 자료를 재량활동이나 방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책을 읽도록 지도하는 활동이다.<sup>32)</sup>

독서교육은 문자와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이유로 주로 국어과 수업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제는 창의적 사고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다른 지식과의 연계 혹은 융합을 위한 수업방법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이고 다양한 학습상황을 경험하게 하여 학습자의 지식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서교육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 등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나 교사는 독서에 대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취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구(2006)는 문학교육도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인 협동을 바탕으로 영역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1)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제2부 설문조사 결과 분석.

32) 천경록 외(2006), 『독서 전략 지도』, 교육과학사, p.282.

실생활과 연관된 교육이 요구되면서 독서교육 또한 순수 학문으로서의 문학 현상과는 달리, 다학문적·학제적 연계를 통한 하나의 종합과학이어야 한다.<sup>33)</sup>

정현선(2004)은 매체의 언어구성 방식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실천을 의미하는가에 주목하면서 문화교육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해 논의하였다. 그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영역 안에서 국어교육의 위상을 설정할 것을 강조하였다.

전통적인 언어를 통한 소통 능력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역시 경유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을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아는 문화적 능력을 포함해야 한다.<sup>34)</sup>

현대인들의 전자 매체 의존 현상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와 문화 향유 방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마트 통신기기의 등장으로 실시간 의사소통과 생각의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다양하고 독창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의 매체 소비자 혹은 사용자들은 문화의 주체가 되어 발전 방향과 특성을 결정하거나 새로운 개념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과학의 발달로 삶의 방식은 경제성과 편리성 위주로 변해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영상과 소리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최첨단 미디어가 앞을 다투어 개발되고 있지만 지식과 정보 전달에서 언어와 문자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대적 지식을 인정하는 구성주의적 인식론은 불확실함, 복잡함, 독특함, 예측이 불가능 등으로 대변되는 현대 사회의 성격에 적합한 학습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성주의 학습에서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창의적, 창조적 사고를 강조한다. 이것은 창조 경제나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와 연관된다. 독서교육도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식의 실천을 강조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하나의 작품을 다 읽고 난 후에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소재와 주제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일반적인 문학교육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작품에 대한 개개인의 느낌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사가 내용을 설명하고 감상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은 바람직한 문학 감상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문학교육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33) 이상구(2006), 앞의 책, p.34.

34)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p.146.

만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지속적인 독서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 문학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감상 방법이 학습자와 문학에 대한 거리감을 벌려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창작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라 여겨진다.

학생들은 문학작품을 읽고 자신 실제생활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 스스로 작품에 흥미를 느끼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어른이 곁에 있다거나 수준에 맞는 책을 접할 기회가 많은 학생들은 평생 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렸을 때의 독서경험이 성인의 독서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책이나 잡지,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행사 등과 접촉할 수 있었던 학생은 읽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이 상대적으로 빠르다. 따라서 논리적 사고가 촉진되고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구사 능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학생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독서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작품을 통해 작품의 구성요소와 문학적 표현 등을 익히는 학습활동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독해 기능뿐 아니라 태도나 습관에도 관심을 가지며 실제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은 학습의 주체로써 학생의 자율성이 인정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독서신문 제작은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계획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떻게 동기를 부여할지 고민해야 한다. 간혹 자기 결정권을 가지게 된 몇몇 학생의 옳지 못한 행동이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사의 관리가 요구된다.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토의나 토론은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을 자극할 수 있다. 모둠 단위의 협동 학습은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든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확대, 발전하여 창의적인 사고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책이나 읽기 자료에 대한 정보를 찾아두는 것이 좋다. 성장기의 학생들이 책 읽기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독서 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바람직하다. 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특기적성 교육 시간을 이용한 활동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 등은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실생활과 연계된 독서활동은 독서의 유용성



을 경험하게 하여 독서 습관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중학생 시기에 이루어지는 독서교육은 학생 개인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모험과 탐색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서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독서신문 제작 또한 오래 전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난 활동 중 하나이다. 구성주의자들은 “텍스트는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기 위해 변형되고, 지식은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 변형된다”<sup>35)</sup>고 하였다.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은 학생의 독서 능력과 매체 이해 그리고 정보 활용 능력 등 종합적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통합 활동이다. 교사는 이 활동을 통해 신문 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도와 정보 수용자로서 비판적 시각과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매체 생산자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은 독서의 목적을 고려한 창조적 재구성 활동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증진시키고 능동적인 독서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서교육에서 의도하는 것은 단지 책을 많이 읽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좋은 책을 찾아 제대로 즐겁게 읽도록 하는 데 있다. 교사는 학생과의 인간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하고 학습자의 성장 발달과 개인차 그리고 독서 능력과 흥미 등을 고려하여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떤 과목의 수업을 담당하든지 독서지도가 반드시 이론이나 규칙 등을 따라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책 읽기의 즐거움은 전문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론적인 지식 습득에 앞서 책 읽기를 좋아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사는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책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하면서 학생의 독서 습관 형성을 도울 수 있다.

---

35) 신현재외 4인 옮김(2004),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 p.378.

### Ⅲ.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

#### 1. 매체교육의 이해

기성세대와 달리 학생들은 인터넷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지식에 익숙해져 있다. 학생들은 시시각각 제공되는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체<sup>36)</sup> 사용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매체의 발달은 소통의 방법을 변화시키고 문화, 산업, 교육 등 인간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매체가 전달하는 정보의 가치와 역할은 이용자의 의도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매클루언은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명제를 통해 같은 정보라도 어떤 미디어를 전달 수단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창출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박진우(2012)는 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전달 수단이나 도구 중심의 기술적인 논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정보에 주목하는 의미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37)</sup>

유네스코는 1973년 미디어 교육 회의를 준비하면서 미디어 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sup>38)</sup>

미디어 교육이란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연구로 커뮤니케이션

36) 매체(media, channel, 媒體): ①메시지를 담아서 수용자들에게 보내는 용기(容器: message-vehicle), 예를 들어 신문·잡지·서적·라디오·TV. ②용기의 운반체 (vehicle-carrier)인 음파·전파·광파. ③메시지의 유통통로(channel)나 네트워크(network). ④신문사·방송국 등의 언론기관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메시지의 용기인 신문·잡지·라디오·TV 등을 의미한다. 메시지와 매체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이들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뉴스나 정보 등의 메시지와 이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신문지나 전파 등의 매체는 서로 다르다. : 이 글에서는 ‘미디어’와 ‘매체’ 그리고 ‘매스 미디어’와 ‘대중 매체’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미디어(媒體, media)는 메시지를 실어 나르는 도구이자 수단’이다. 김기태는 미디어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간이 만든 도구라고 하며 매스미디어는 출판, 신문, 사진, 만화 등 인쇄매체와 라디오, 음반 등 음성매체, 그리고 영화, 텔레비전 등 영상매체와 다양한 뉴미디어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 매체는 감각 기관, 전달 수단, 전달 내용 그리고 전달 대상 또는 전달 기술의 발전사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되어 왔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융·복합 현상으로 기존의 분류 기준으로는 범주화가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탄생하고 있다. : 박진우 외(2012), 『한국의 미디어 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

37) 박진우 외(2012), 위의 책, p.14.

38) 국제 영화 텔레비전 심의회(IFTC)는 1973년에 창설된 것으로 UNESCO가 개최하는 미디어 교육 보고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조직됨. : 최창섭(1985), 앞의 책, p.21에서 재인용.

과 표현 매체를 교육의 이론과 실천 안에 있는 지식의 전문적이고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야 한다. 따라서 수학, 과학, 지리학과 같은 다른 지식의 영역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보조로 사용되는 것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영역이다.<sup>39)</sup>

최창섭은 매체 자체를 하나의 지식 영역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체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매체교육은 매스 미디어의 본질과 기술, 목적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으로서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텔레비전이나 영화 또는 신문, 잡지 등을 통하여 듣고 보는 바를 제대로 감상하고 선별하며, 비판적인 독자, 시청자, 수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0)</sup>

안정임, 전경란은 매체교육은 ‘매체가 우리 삶의 일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보며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매체교육은 매체의 언어와 문법, 대중매체의 본질과 기술 등을 가르치고, 대중매체를 읽고 쓰는 교육 과정을 통하여 각자가 속한 사회의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환경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데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한다.<sup>41)</sup>

매체교육에 대한 입장과 시각은 특정 사회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매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교육, 매체문식성교육, 정보소비자교육, 수용자운동, 인성교육, 문화향유 및 생산교육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데이비드 버킹엄<sup>42)</sup>은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고,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교육의 결

39) 김양은(200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p.50.

40) 최창섭(1985), 『미디어교육론』, 나남, p.22.

41) 안정임, 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p.30.

42) 데이비드 버킹엄(David Buckingham) : 영국의 미디어 교육 연구자.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디어 문화, 학교 안팎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교육매체에 대한 미디어 분석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왕성한 연구를 통해 문화 연구로서 미디어 교육을 새롭게 정립했다. 저서로 『미디어교육』(2003), 『시민 만들기 : 청소년, 뉴스, 그리고 정치』(2000) 등이 있다. : 정현선(2004), 『전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우리교육에서 재 인용.

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읽기(reading)’와 미디어 텍스트를 제작하는 ‘쓰기(writing)’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 그리고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과 능동적인 제작 모두를 목표로 한다.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소비자로서 미디어를 해석하고 정보에 근거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제작자가 될 수 있게 한다. 궁극적으로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들의 비판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sup>43)</sup>

기존의 매체교육이 시청각교육과 동일시되거나 매체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으로 인식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매체문식성<sup>44)</sup>을 향상시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매체교육은 다양한 매체 환경 속에서의 사회와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매체의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비판적이면서 주체적인 태도로 매체를 이용하여 사회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매체의 개인화가 확산됨에 따라 매체 이용 행태도 변하고 있다. 오늘날 매체 이용자는 정보를 검색하기만 할 뿐 아니라 이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산해내는 일이 가능해졌다. 매체를 이용하는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매체의 종류나 내용 선택 등이 사용자 개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디지털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매체 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극심한 산업 경쟁 구도에서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앞세우고 있다. 전통적인 매체교육에서 주로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방어적·비판적 태도를 강조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매클루언<sup>45)</sup>은 모든 매체는 그 내용이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그 매체 자체가

43) 박진우 외(2012), 앞의 책, p.35.

44) 미국 매체문식성 협회에서는 매체문식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매체문식성이란 급증하고 있는 이미지, 언어, 소리를 활용한 광범위한 범위의 메시지에 대해 비판적 사고와 창조적 생산의 권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 문식성을 매체 및 전자 메시지에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기술이 변화됨에 따라 매체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매체문식성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능이다(Center for Media Literacy, 2001). : Judith W. Irwin, 천경록·이경화·서혁 옮김(2013), 『독서 교육론』, 박이정, p.176에서 재인용.

45) 마셜 매클루언 (Marshall McLuhan, 1911~1980)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 『미디어가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를 출간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관련해 특정 미디어 내용보다는 미디어 상황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인류 역사의 핵심적인 전환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명과 확산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고 이런 의미에서 미디어 환경과 정보 생태계를 인식해야 함을 일깨워주었다. : 이재현(2013), 『디제라티』, 커뮤니케이션북스.

인간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미디어의 변화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바꾼다”<sup>46)</sup>고 하였다. 그는 텔레비전에 익숙한 신세대들이 인쇄 미디어에 익숙한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앉아 있는 것을 지루하게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환경이 총체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학습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회 변화, 그리고 하위조직으로서의 교육의 변화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의 원동력인 인간의 창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매체교육의 목표와 일치한다.<sup>47)</sup>

캐롤 크래그스는 미디어 교육의 시행 근거로 네 가지 측면을 제시하였다.

첫째, 미디어 소비가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수용자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수용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시간적인 측면뿐 아니라 미디어가 우리의 현실 인식이나 문화적 취향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매스 미디어의 영향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수용자로 하여금 미디어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해독(독해, literacy)’이라는 개념의 변화이다. 미래에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미디어 소비 형태 역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 첨단 영상 기술로 전달되는 메시지의 해독과 이를 통한 미디어의 현실 구성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위해서는 기존의 문자 위주 교육뿐 아니라 미디어 자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다.

셋째, 미디어 교육은 시민정신의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 복잡한 미디어 환경에서 성장한 현재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들은 자연스럽게 ‘정보 수단을 장악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미디어 수용자들은 미디어가 가진 막강한 영향력 아래 자신의 권리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등에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학습이라는 개념을 들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지금까지 당연시해왔던 미디어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호기심과 비판적

46) 스테파니 매클루언·데이비드 스테인즈 편저(2008), 김정태 옮김, 『매클루언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47) 김양은(200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pp.53~57.

능력을 제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학습이라는 개념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이외에도 그는 여러 학자들이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사람들이 비판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시된 인터넷 악성 댓글이나 신상 털기 등은 사회로부터 개인을 고립시켜 자살이나 폭력을 조장해 왔다. 이러한 매체의 폐단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야기하며 오늘날 사회문제로 고착화되고 있다.

매체 환경 변화의 가속화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교육 목적이나 학습 방법 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 변화의 가속화 속에서 현재의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의 삶의 모습을 예측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실린 기존의 지식이나 개념들이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여 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서 인정 도서제도는 보완이 필요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영역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김신정은 최근 문학의 현상과 문화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호 문화적 능력과 매체 문식성 함양이 문학교육의 주된 목표로써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문학 창작 및 문화 전반의 발달을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바탕이다.<sup>49)</sup>

교사는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이 신문매체를 다루는 매체 관련 수업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매체의 사회적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기초학습이 되어야 한다.

48) 안정입, 전경란(1999), 앞의 책, pp.19~21. : 박진우 외(2012), 앞의 책, pp.25~27에서 재인용.

49) 윤영천 외(2009), 『문학의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 문학과지성사, p.174.

## 2. 교수·학습지도 계획

신문을 제작하는 활동은 학생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찰력과 분석력, 정보 활용능력을 길러주는 데 효과적이다.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학생들은 책이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모으고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다. 학생들은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모둠 과제 수행을 위해 토의와 토론을 반복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발표 능력이나 사회성 등이 길러진다.

정기철은 독서신문 만들기를 통한 문학 작품 감상 활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①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로 표현의 수월성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② 여러 가지 표현 형식이 가능하며 종합적인 표현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 ③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가능하다.
- ④ 작품을 현실감과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작품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석을 가능하도록 해준다.
- ⑤ 작품을 기사화하거나 해설, 사설 등의 표현을 통하여 글쓰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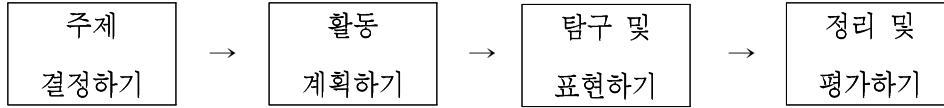
책을 읽은 후에 자기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보게 하는 활동은 학생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여 글로 써보게 하면서 학생의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다. Judith W. Irwin은 쓰기를 독자의 적극적인 의미구성 활동으로 독서능력 계발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도구라고 보고, 독서 교육에서 교사는 쓰기 과정에 독서 과정을 보강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sup>51)</sup>

학습의 목적과 연관되고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실제적인 독서활동을 목적으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모형 단계를 아래 <표 1>과 같이 설정하였다.

50) 정기철(2001), 『창의력 계발을 위한 독서지도법과 독서신문 만들기』, 역락, p.62.

51) Judith W. Irwin 저, 천경록·이경화·서혁 옮김(2003), 『독서교육론』, 박이정, p.51.

<표 1> 교수·학습지도 모형



독서활동 교수·학습지도 모형을 바탕으로 독서신문 제작 활동 계획을 정리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교수·학습지도 계획<sup>52)</sup>

단계	학습 과정	학습 형태	활동 내용
1	주제 결정하기	전체학습	작품 읽기
		모둠학습	모듬 구성
2	활동 계획하기	모둠학습	신문 이해 학습 - 신문의 개념 - 신문의 기능 - 신문의 지면 구조 - 신문의 구성 요소 및 특징 - 신문 제작 과정
			편집회의
3	탐구 및 표현하기	개별학습 모둠학습	자료 조사 및 내용 정리 신문 편집
4	정리 및 평가하기	모둠학습 전체학습	정리 및 평가

52) 임영규 외(2008), 『독서논술 지도의 방법과 실제』, 정인, p.28 '독서학습 모형의 적용 사례' 참고하여 편집함.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은 대부분이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독서활동은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학생들의 학습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교육 현장에서 독서교육은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생활과 연관 짓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1) 주제 결정하기

### 가) 작품 읽기

읽기의 구체적인 목적은 독자에게 구체적인 사고 과정을 요구한다. 학습자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읽기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능동적인 학습태도가 권장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할 땐 이미 학습한 기능이나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주는 것이 좋다.

독서 과정을 가르칠 때에는 수업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도록 지도 방법과 지도 전략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첫째, 교사는 학습자가 의미 구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는 의미 있는 읽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학습자의 읽기 전략이 부족할 때는 명확한 전략을 안내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읽기와 비슷한 의미 구성 활동인 쓰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지도해야 한다.

넷째, 의미 구성에 관한 내용과 사용되는 전략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독자들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의미와 전략들을 공유하도록 토론을 활성화하여야 한다.<sup>53)</sup>

이 활동은 중학생의 학년 수준이나 개인의 독서 능력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독서 자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교사는 활동에 참여한 학생 모두가 작품의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미리 작품을 읽고 오게 하거나, 수업시간에 이미 읽은 작품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현행 중학교 교과서에 전문이 실린 소설 작품은 많지 않다. 단편이라 하더라도 교과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기엔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중심으로 전문을 읽어오게 하고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해 이해를 심화 시키는 것도 의

53) Judith W. Irwin 저, 천경록·이경화·서혁 옮김(2003), 앞의 책, pp.33~34.

미가 있을 것이다.

#### 나) 모둠 구성

단일한 협동학습 모형이 모든 수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수업 목표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여 모둠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수업의 목표와 선택한 과제에 적합한 협동학습 모형을 찾아 모둠을 정한다. 그 다음 이에 따라 교실을 나누고 책상을 배치하는 등 과제 수행에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협동학습으로 수업을 계획한 교사는 모둠학생들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이가 상호작용을 통해 목표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수업 목표에 적합한 협동학습 모형이라고 해서 교사가 기대하는 결과가 항상 혹은 제대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협동학습 구조는 학습자의 집중력이 떨어질 경우 학습 분위기가 산만해지기 쉽다. 저학년일 경우 학습 능력이 낮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학생이 성취감을 쉽게 느낄 수 있게 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빠른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학년 학생에게 제시하는 과제는 자기주도적 활동이 가능하면서도 동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좋다. 학습능력이 높고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갖는 시기라 구체적이고 단순한 과제는 오히려 학습활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잃게 만든다.

여기서 제시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은 모둠 안에서 수업 목표에 맞는 활동과제를 분담하여 학생 개인의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구성원 모두의 작품을 모아 신문이라는 하나의 형식에 맞춘 결과물을 완성시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모둠 구성원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 모둠 단위는 4~6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 한 모듬의 인원이 여섯 명이 넘게 되면 의견을 조율하거나 발표 차례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화할 때 집중도가 떨어져 학습에 대한 방관자가 생기거나 모듬 분위기가 산만해지기 쉽다. 세 명 이하일 경우에는 의견 통합이 수월하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못해 자칫 활동 내용이 단순해진다. 수업 목표와 활동에 적합한 모듬 구성은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 2) 활동 계획하기

## 가) 신문 이해

### (1) 신문의 개념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로써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다. 신문은 다양한 정보 매체 중 하나로 문자나 사진 도표 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인쇄 매체이다. 장호순은 신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신문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해설을 널리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정기 간행물”이다. 신문이란 한자어에서 비롯된 단어로, 그 뜻을 풀이하면 새로운 소식이나 견문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896년 <독립신문>의 등장 이래 신문이란 용어는 소식이나 뉴스라는 의미보다는 종이신문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sup>54)</sup>

신문은 뉴스와 정보 위주의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종이 인쇄물의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신문의 형식과 보급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신문의 등장으로 신문 구독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매체 선호도가 계속 낮아지는 실정이다. 다양한 매체의 보급과 확산으로 사건이나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으로 개인의 매체 접속 기회가 증가하고 접속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를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상업성이 강한 매체들과 비교할 때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로써의 신문의 입지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본다.

신문의 종류는 주제나 목적 등에 따라 실로 다양하다. 내용에 따라 종합지와 전문지로 나누거나, 발행 간격에 따라 일간지와 주간지 그리고 월간지, 발행하는 곳에 따라 교지와 기관지 그리고 정당지, 발행 시기에 따라 조간지와 석간지 등으로 구분된다.

학생들에게 ‘신문’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모두 말해 보게 한다. 학생들의 발표 내용을 모두 칠판에 쓴다.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여 ‘신문은 ( )이다.’라고 표현해보게 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신문의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 (2) 신문의 기능

신문의 기능을 파악하는 것은 신문이 사회와 소통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문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한 학생들은 독서신문을 제작하면서 자신이 맡은 기사의

54) 장호순(2012), 『현대 신문의 이해』, 나남, p.13 참조.

내용이 신문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며 글을 쓰게 될 것이다.

신문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도·계도·오락·광고 기능이 그것이다.<sup>55)</sup>

<표 3> 신문의 기능

보도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의 사건·사고 정보를 선택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한다.</li> <li>-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규범을 강화시킨다.</li> </ul>
계도 기능 (교육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를 설득해서 어떠한 태도나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li> <li>-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다.</li> </ul>
오락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에게 휴식이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기사가 제공된다.</li> <li>- 사회 긴장감을 해소시키고 문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li> </ul>
광고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자에게 상품과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한다.</li> <li>- 국민의 소비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li> </ul>

오늘날까지도 신문은 공공 사회의 발전과 경제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체이다. 신문은 사적인 이익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매체와 달리 국가와 사회의 공익을 우선시하고 국민 여론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적이면서 객관적 성격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신문 기사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광고의 구성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결정된다. 신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사람마다 흥미나 관심이 다른 것처럼 신문을 읽는 목적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신문에 는 정치, 사회, 경제, 국제 사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실려 있어 사회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공연이나 전시, 책과 영화 정보 그리고 스포츠 소식 등 유용한 정보를 알려 주어 문화생활에 도움을 준다. 사설이나 칼럼 등 주요 사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알려 주어 독자의 판단을 돕기도 한다. 만화나 만평 등을 통해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거나 고발 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광고를 통해 새로운 제품 정보를 알리거나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

55) 이태중(2006), 『NIE 원론 I』, 도서출판 통키, pp.45~46 참조.

주기도 한다. 교사는 신문에 실리는 내용들이 독자에게 어떤 의의가 있을지 말해 보게 하면서 학생들이 신문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3) 신문의 지면 구조

신문의 지면 구조를 파악하는 활동은 신문 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신문의 기본 역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신문에 실리는 소식은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흥미로운 소식이 신문 1면의 제호 바로 아래 실리게 된다. 독서신문이나 가족신문을 만들 때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주요기사로 작성하여 신문의 맨 앞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신문의 주제나 만든 목적을 쉽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신문 1면 구조<sup>56)</sup>



출출 광고	제호(신문 이름)	출출광고
창간일	(신문 이름-영어)	발행 날짜
표제 부제	기사	사진
기사		표제 부제
표제 부제	기사	기사
기사		표제 부제 기사
광고		

56) 경향신문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주제어 '신문'.

교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신문을 펼쳐 지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구성 요소를 찾아 표시해 보게 한다. 학생들은 신문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게 되고 기사문의 구조나 광고 문구의 효과 등을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신문을 펼치면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이 신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에게 신문을 나누어 줄 때는 신문을 사용하고 나서 반드시 원래대로 접어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 (4) 신문 구성 요소 및 특징<sup>57)</sup>

신문의 이름을 '제호'라고 한다. 제호는 주로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나 신문의 주제에 맞춰 결정된다. 제호 옆에 창간일과 발행 날짜를 표시한다.

편집자는 정보가 편향되지 않도록 1면을 기준으로 종합면을 구성하여 지면을 신축성 있게 관리한다. 신문 1면에는 가장 비중 있는 기사를 실고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제목의 굵기, 사진이나 이미지의 색깔이나 크기 등을 강조한다. 독자는 신문 1면을 보고 신문 구매를 결정하게 된다.

##### ① 기사

보도기사는 신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로 사실적·객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보도기사의 내용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다양한 계층의 독자를 위해 기자가 수집한 정보를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하여 완성한다. 되도록 쉽고 표준적인 표현을 선택하고 간결한 문장으로 쓴다. 보도기사는 기자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도록 육하원칙에 맞게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기사는 표제·부제·전문·본문·해설 등의 순서로 구성된다. 기사를 정리할 때는 일정한 사건내용 중 중요한 정보 순으로 내용을 배치하는 역피라미드 방식으로 쓴다. 역피라미드형 기사는 요약문을 기사의 앞부분에 배치하여 내세워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기사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자가 신속하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게 한다.

##### ② 사진

신문사진은 독자에게 기사에 대한 신뢰감을 주는 요소이다. 신문사진은 전달력이 강하고 현장감이 있다. 기사의 사진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을 보

57) 장호순(2012), 앞의 책,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충하는 역할을 하고 기사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한다. 사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목을 달거나 육하원칙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여 간결하게 표현한다. 한편, 신문사진은 전체 중 극히 일부를 강조하여 독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도사진의 경우 사건이나 사고의 배경을 강조한 것보다 상황이나 인물에 초점을 둔 사진을 사용하여 정보의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

### ③ 칼럼

칼럼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신문에서 다루는 모든 소재를 다룰 수 있다. 정치나 사회적 주제 이외에도 스포츠칼럼, 영화칼럼, 요리칼럼, 여행칼럼 등 그 소재가 다양하다. 객관적 사실 위주로 구성되는 보도 기사와 달리 칼럼에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내용과 함께 필자의 시각이나 견해가 반영된다. 그러나 필자가 명시된다는 점에서 사실과는 다르다. 칼럼을 통해 독자는 사회현상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거나 뉴스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각을 경험할 수 있다.

### ④ 만화

신문에 실린 만화는 주로 시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적인 주제에 관한 논평이 담긴 만화로 독자의 주목을 받기 쉬운 곳에 배치된다. 시사만화는 풍자, 해학, 패러디를 통해 신문이 보도하는 사건들을 단순화, 명료화, 시각화해서 전달한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시사만화 작가가 어떤 소재를 선택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독자의 여론이 형성되기도 한다. 보통 네 컷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카툰이나 캐리커처, 연재만화 등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형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 ⑤ 독자투고

신문지면에는 독자투고, 댓글 달기 등을 통해 독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독자투고는 사회의 쟁점에 대한 독자의 견해를 표현하는 장이다. 신문의 내용이 특정 집단 또는 편집진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한다. 독자들이 신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지면으로, 기사 내용에 대한 불만 외에 오자나 탈자 등을 지적함으로써 신문 제작상의 오류를 줄여준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기사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 ⑥ 광고

신문광고는 독자들의 신문 구매비용을 절감시켜 신문의 대중화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독자는 저렴하게 신문을 구독하게 되고, 광고주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

하도록 설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신문광고는 내용에 따라 상품광고, 기업홍보 광고, 생활정보형 광고, 행사광고, 의견광고, 공익광고, 정부광고 등으로 구분된다. 신문에 실리는 광고의 크기에 따라서는 전면 광고, 5단 광고, 1단 광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광고의 효과는 얼마나 많은 목표 소비자에게 광고주가 원하는 내용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므로 신문의 발행부수가 광고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독자의 광고 열독률은 광고의 위치, 크기나 색상 등에 따라 좌우된다. 흑백 광고에 비해 컬러 광고를 읽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 ⑦ 인터뷰

인터뷰는 기사의 중심인물에게 어떤 뉴스에 대한 생각을 듣거나 인물 자체를 탐구하는 일이다.<sup>58)</sup> 보도기사에서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던 배경 해석, 설명, 전망, 영향을 다루게 된다. 뉴스의 내용을 보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읽을거리를 주기도 한다. 인터뷰 기사는 일문일답형으로 작성한다. 중심 문장을 먼저 쓰고 이어서 본문을 쓴다. 인물 인터뷰는 인물의 현재 상황에서 시작하여 알고 싶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문한다. 인물의 사정을 기사와 함께 배치하는 것도 독자의 관심을 끄는 데 효과가 있다.

#### ⑧ 사설

사설은 사건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신문사의 생각이나 주장이다.<sup>59)</sup> 신문사가 어떤 문제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려 입장을 밝히는 글로 일반적으로 서론·본론·결론 등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도 신문사에 따라 사설에서 상반된 주장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설은 신문사에서 위촉한 논설위원이 쓰게 되며 주로 정책이나 사안 등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힌다.

신문은 다양한 정보와 구성 요소들의 집합소이다. 신문 독자는 각각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여론 형성에 참여하게 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신문 만들기 활동을 계획할 때 수업 대상과 학습 상황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구성 요소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 (5) 신문 제작 과정

신문 제작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신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기자가 쓴 글은 신

58) 이태중(2006), 앞의 책, p.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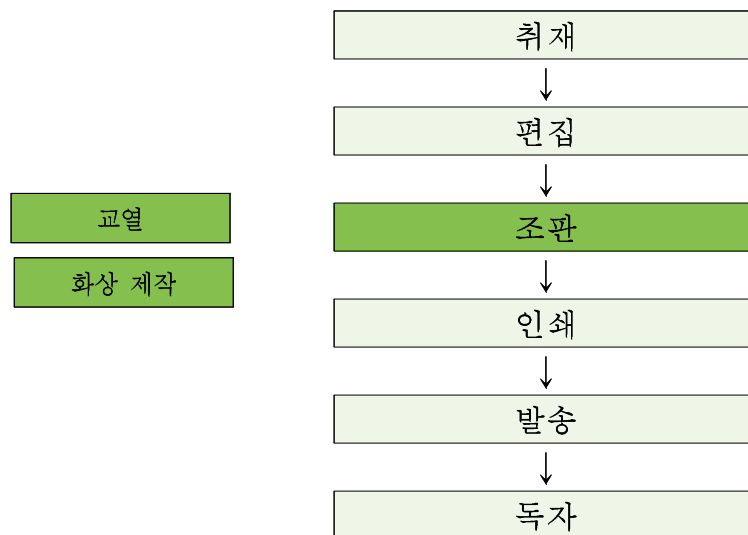
59) 이태중(2006), 위의 책, p.48.



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제거되거나 고쳐진다. 간혹 외적인 압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취재나 기사 작성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기사가 실린 신문은 신뢰도가 떨어져 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외면당하기도 한다. 좀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신문이나 인터넷 혹은 TV 뉴스와 비교하며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은 신문을 만드는 경험을 통해 신문과 신문기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신문 제작 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신문 제작 과정<sup>60)</sup>



독서신문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신문에 들어갈 내용을 모으고 배치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기자가 기사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을 취재라고 한다.

기자들이 사용하는 취재 수단은 다양하다. 사건 현장을 관찰하거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가장 일상적인 취재는 대면이나 전화를 통한 인터뷰이다. 그 외에도 각종 단체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각종 문서, 다른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 그리고 인터넷에서 입수하는 각종 정보들이 기사의 주된 재료가 된다.<sup>61)</sup>

60) 한겨레 신문사 자료 편집. : [http://company.hani.co.kr/sp?pname=media.index&spname=media\\_01\\_03](http://company.hani.co.kr/sp?pname=media.index&spname=media_01_03)

61) 장호순(2012), 앞의 책, p.247.

수집된 정보를 정리하여 배치하는 활동을 편집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 편집은 독자의 기사 선택을 좌우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편집 과정에서 정보 전달 기능과 함께 시각적으로 흥미를 끄는 요소를 적절한 곳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장호순(2012)은 신문 편집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하는 디자인 속성으로 정보성, 간결성, 명확성,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 나) 편집회의

편집회의는 신문 제작의 시작이다. 편집회의는 학생들이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지만 자료 정리를 마치고 난 후에도 할 필요가 있다. 활동을 시작할 때는 학생들은 무엇부터 해야 좋을 몰라 당황하게 된다. 교사는 학생들이 편집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칠판에 쓰거나 화면 자료로 보여주어야 한다. 모둠에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사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 한편의 작품을 주제로 다양한 감상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1차 편집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제호 정하기
- 신문의 크기와 모양 정하기
- 구성 내용 목록 및 지면 배치 계획하기
- 역할 나누기
- 자료 및 제작 방법 정하기

1차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의 수행 결과나 진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차 편집회의가 필요하다. 독서신문 제작 활동의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 2차 편집회의는 1차에 비해 간략하게 진행된다.

독서신문을 제작하는 학습자는 정보 생산자의 시각을 떠나 그 신문을 읽게 될 독자를 위해 편집 효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형식은 내용을 선택할 때 대부분 가장 먼저 관심이 가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신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신문을 만든 학생들의 개성이나 의도가 제대로 전해질 수 있을 때 협동 학습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것은 정보의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생산자의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자의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 또한 활동을 위해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그림 3> 신문의 크기<sup>62)</sup>

64절	32절	8절 (272mm×393mm)	2절 : 일간신문 1면을 펼친 상태 (545mm×788mm)
16절 (272mm×195mm)			
4절 (393mm×545mm)			

독서신문의 크기는 2절지 두 장 정도가 적당하다. 교사는 활동에 사용할 종이로 모둠마다 2절지를 두 장씩 준비하도록 한다. 2절지 한 장은 신문 1면을 펼쳐 놓은 크기로 보통 ‘타블로이드판’이라고 한다. 보통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생활정보지가 타블로이드 신문이다. 2절지 두 장을 맞붙이게 되면 일간지 양면을 완전히 펼쳐놓은 크기와 같다. 2절지 두 장을 기본으로 양면을 사용하게 하고 지면 수를 가감할 수 있다.

모듬을 나누고 독서신문의 형식과 내용을 알려주었다면 독서신문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활동에 필요한 기본 물품들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확인하고 시작에 앞서 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을 알려준다.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의 학습태도는 물론 주변 정리 및 자료 보관에 이르기까지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한다. 독서신문이 완성되면 독서신문 평가서를 통해 개인 활동 평가와 모듬 상호평가를 하도록 한다. 교사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작품과 활동 태도에 대한 총평을 준비한다.

62) 그림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주제어 ‘종이 크기’, <http://cafe.naver.com/inmacbook/230710>.

<표 4> 모둠 역할 분담표

역할	담당 기자	내용 및 준비 사항
기사문		
사진		
만화		
광고		
인터뷰		
칼럼		
사설		
시각 자료		
기타		

교사는 독서신문제작 활동 과정과 함께 작품 내용과 수업 주제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편집회의와 함께 활동이 시작되면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 3) 탐구 및 표현하기

#### 가) 자료 조사 및 내용 정리

신문의 내용을 생성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작품을 읽고 <표 5>의 독서신문 활동 형식과 내용을 참고하여 각각 자신이 맡은 내용을 A4에 정리한다. 처음부터 신문에 직접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용을 다른 곳에 써 놓고 옮겨 쓰거나 혹은 신문을 꾸밀 종이 위에 쓴 다음 오려 붙이는 게 좋다. 교사는 학생들이 신문 제작 활동을 시작할 때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활동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생각을 인정해주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신문의 구성 요소 중 학생들이 활동하게 될 표현 형식과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독서신문 활동 형식과 내용

형식	내 용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둠 특성에 맞게 짓는다.</li> <li>- 모둠 이름이 곧 신문 이름이 되기도 한다.</li> </ul>
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의 줄거리나 일어난 사건을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하여 쓴다. (육하원칙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li> <li>- 사실을 객관적으로 쓴다.</li> <li>- 독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표현으로 표제와 부제 문장을 쓴다.</li> <li>-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요약문을 쓴다.</li> <li>- 본문은 요약문을 자세하게 풀어쓴다.</li> </ul>
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 만화는 주로 4컷이나 6컷 이내가 적당하다.</li> <li>- 주요 사건을 골라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만화 줄거리를 정리한다.</li> <li>- 줄거리를 바탕으로 장면을 나누고 각 칸의 내용을 정리한다.</li> <li>-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드러나게 인물과 배경을 그린 후 말주머니를 채운다.</li> </ul>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의 내용과 관련되게 만든다.</li> <li>- 광고문에서 표제는 핵심이 드러나게 간결하게 만든다.</li> <li>- 본문에서 간결한 문장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li> <li>- 설득력 있게 표현하되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은 삼간다.</li> </ul>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이나 작가에 대한 가상 인터뷰를 쓴다.</li> <li>- 작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쓰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한다.</li> <li>- 인물을 인터뷰할 때는 성격과 심리를 고려하며 질문과 답을 작성한다.</li> </ul>
칼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쓴다.</li> <li>- 기사와 달리 개인적인 주장이 드러나게 쓸 수 있다.</li> </ul>
사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건에 대한 모둠원의 의견을 모아 사설의 내용을 구성한다.</li> <li>-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을 주장하고 대안이나 해결 방법을 쓴다.</li> </ul>
편집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신문을 완성한 뒤 모듬 신문 뒷면에 모듬원 모두의 이름을 쓰고 한 두 문장으로 활동 소감을 쓴다.</li> </ul>

#### 나) 신문 편집

학생들은 싸인펜이나 매직펜 색연필 등을 이용하여 글씨나 그림 등으로 신문을 제작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 사진이나 그림 또는 신문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신문 이해 학습을 마친 학생들은 신문의 기능과 편집의 특징을 고려하여 기사를 배치하게 되고, 시각적 효과를 생각하며 글씨의 크기와 모양을 정하게 된다. 신문이 완성되면 교사는 활동에 참여한 학생 모두에게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한 두 문장으로 정리하여 편집후기를 쓰게 한다.

#### 4) 정리 및 평가하기

구성주의 수업에서 평가는 수업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긴다. 학생들과 교사의 상호작용,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이 아이디어와 자료를 가지고 활동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모둠이나 집단에 대한 평가가 일부 모둠 구성원을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에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모둠활동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 개인의 발전에 주목하여 향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모둠 활동을 하는 학생 개개인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수행과정을 관찰해야 한다.

학습자의 향상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은 교사에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학생의 학습 향상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교사는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수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방법은 학습 동기가 부족한 학생이나 학습하는 습관이 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줄 수 있다.

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나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설문지 조사는 교사가 학생의 독서 수준이나 독서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사는 수집한 내용을 참고하여 학습자 혹은 독서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모둠 구성원들을 평가하게 된다. 학생들은 동료와 자신의 학습 태도와 수업에 참여 정도, 활동 결과물 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평가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동료들과 상호 협력자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활동을 다 마친 후 모듬은 모듬원끼리 완성된 독서신문을 보면서 활동 과정이나 결과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한다.

<표 6>은 자신과 자신이 소속된 모듬 동료들의 학습 활동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평가지의 예이다.

<표 6> 모듬활동 평가지<sup>63)</sup>

2학년 ( )반 ( )모듬 신문사

▶ 모듬 친구들과 함께 완성된 신문을 감상한 후, 아래의 [평가 기준] 을 참고하며 모듬 동료의 활동을 평가해 보시오.

[평가 기준] 1.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였는가?  
 2.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는가?  
 3.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는가?  
 4. 동료들을 존중하였는가?  
 5. 정리정돈을 잘하였는가?

이름	평 가 내 용	평점
(예) 홍길동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신문 만들기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음.	○○○○○
		○○○○○
		○○○○○
		○○○○○
		○○○○○

모듬 동료 평가가 끝나면 학생들은 다른 모듬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63) 이영란(2008), 앞의 논문, '신문 만들기 평가지' 참조하여 내용 편집함.

기준으로 독서신문을 평가하게 된다. 교사가 제시하는 평가 기준이 학생들에게 활동 목표와 의미를 재확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표 7> 독서신문 평가지<sup>64)</sup>

▶ 다른 모둠에서 만든 신문을 감상하고 [평가 기준]에 맞게 아래 평가표를 작성하시오.

- [평가 기준]
1. 기사가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가? (5점)
  2. 신문사의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3점)
  3. 깔끔하고 보기 좋게 편집되어 있는가? (2점)

신문 이름	평가 내용	내용	창의성	편집	총점

독서 수업에서 독서신문을 만들어 보게 하는 목적은 학생들이 문학작품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독서신문을 만들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신문의 각 구성 요소에 작품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완성된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러한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몇 가지 평가 기준을 정해 주어야 한다. 평가를 위해 수집된 정보는 학생들의 독서 능력이나 독서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지도 방안을 계발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64) 이영란(2008), 앞의 논문, '신문 만들기 평가지' 참조하여 내용 편집함.



학습목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평가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되고 학습이 이루어진 정도에 따라 적절한 정보나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 IV.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실제

### 1. 교수·학습지도 과정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과 관련 독서활동으로 국어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독서지도 수업모형에 적용해 보았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을 관찰하여 프로그램 진행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며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 후에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 활동의 적절성을 확인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도내에 소재한 C 중학교 2학년 세 개 학급 74명을 대상으로 정규 국어교과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였다. 1반과 3반에는 신문 이해 과정을 적용하였고 2반에는 신문 이해 과정을 생략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각 학급 모두 4~5명 단위로 6개의 학습 모둠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교수·학습과정안을 적용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한 2학년 세 학급의 학생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8> C 중학교 2학년 학급편성표

반	1	2	3	계
여학생	12	12	12	36
남학생	12	13	13	38
계	24	25	25	74

도심 인근이면서 농촌 지역 읍면 학군을 포함하고 있는 이 학교는 교육환경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군 지역 학생이 도시의 규모가 큰 학교로 이탈함에 따라 교육 공동화 현상이 가속되어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학급 수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 지역 학교로 학생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더 높아

지고 있다. 이 학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자율학교로 선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학생들의 국어교과 진도에 맞춰 교과서 3권의 4단원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에서 소단원 (3) 「아기장수 우투리」 수업을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대단원의 주제는 문학작품에서 창작자의 의도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 그 당시의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그 소통 맥락의 연관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투리 설화는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은 우투리와, 그런 우투리가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백성들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와 달리 비극적인 결말로 우투리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독서 활동 5차시, 신문 제작 1차시, 평가 1차시로 총 7차시 수업을 계획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심 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서와 글쓰기 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졌다.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아침 10분 독서’ 시간에 학습만화를 보거나 과제로 주어진 학습지의 문제를 풀기도 했다. 참고로 이 학교의 독서동아리 학생 수는 3학년은 남학생 한 명, 2학년은 여학생 두 명과 남학생 한 명 그리고 1학년은 여학생 두 명으로 모두 여섯 명이다. 그중에는 도서관 봉사활동 점수를 얻기 위해 독서동아리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의 반응에서 평소 독서에 대한 관심 정도를 추측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 전 과정을 학생중심으로 하려던 계획을 바꾸고 이 학교 학생들의 현재 상황과 수준을 고려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학생이 중심이 되어 신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학생들이 신문 형식의 글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 후 신문을 제작하게 하였다. 전체적인 수업 계획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아기장수 우투리」 교수·학습 계획

과정	내용	차시
주제 결정하기	- 작품 읽기 - 모듈 구성	1
활동 계획하기	- 신문 이해	2
탐구 및 표현하기	- 기사문 쓰기 - 만화 그리기	3
	- 역할극 - 인터뷰 기사 쓰기 - 칼럼 쓰기	4
	- 주장하는 글쓰기 - 광고 만들기	5
	- 편집회의 - 신문 편집	6
정리 및 평가하기	- 자기 모듈 독서신문 감상 및 모듈원 역할 평가 - 다른 모듈 독서신문 감상 및 모듈 외 평가 - 교사 총평	7
반응 조사	- 설문지 작성	

### 1) 주제 결정하기

작품 이해를 위해 먼저 학생들에게 대단원 및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확인시킨다. 4단원 전체의 학습 목표는 작품의 사회적·문화적 상황을 바탕으로 창작 의도를 파악하고, 창작 의도<sup>65)</sup>와 소통 맥락<sup>66)</sup>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소단원 (3)

65) 이 단원에서는 ‘창작 의도’를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견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66) 이 단원에서는 ‘소통 맥락’을 작품을 둘러싼 작가, 사회, 창작 의도, 독자 등이 서로 이어져 뜻이 전달되도록 맺어진 관계를 이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기장수 우투리」 수업에서는 작가와 작품 그리고 독자를 둘러싸고 있는 작품의 소통 맥락을 이해하고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소통 맥락과 현대의 소통 맥락을 비교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신문 만들기 활동은 이러한 성취 수준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내는 활동으로 적합하다.

수업 전에 작품을 미리 읽고 올 것을 당부한 뒤, 본 수업 시간에 동영상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함께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제공한 동영상 자료는 구어체로 되어 있는 본문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 이야기를 들려준다.

1차시 수업이 시작되면 반 학생 모두가 수업 준비를 마칠 때까지 책에 나온 낱말의 뜻을 정리하여 습득하게 한다.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함께 낱말의 뜻을 확인한다. 특히 시대적 배경이 다르거나 문화 차이로 이해가 어려운 책으로 수업할 때 책을 읽기 전이나 읽는 중에 어려운 낱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많은 학생들이 쉬운 낱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첫 시간에는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PPT로 제작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는 시각적 흥미를 끌어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특히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 시각적인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중학생 학습자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기 쉽고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동료들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시기이므로 학습과 관련된 동영상이나 이미지 자료를 준비하여 공통된 주제로 학습 분위기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교사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시간이나 동영상의 주제를 한정시켜 학습 주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아기장수 우투리」 독서지도 교수·학습과정안 1차시부터 7차시를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0> 교수·학습과정안 1차시

지도 일시	년 월 일	대상	중 2	장소	도서실	지도교사	○○○
대 단 원	4.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	소단원	(3) 아기장수 우투리	쪽수	p.157~165	차시	1/7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를 읽고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말할 수 있다.</li> <li>• 우투리의 삶을 영웅 이야기의 일반적인 특징과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li> </ul>						
학습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li> <li>• 「아기장수 우투리」 읽어오기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li> <li>• 교과서 157쪽 그림과 동영상을 보며 영웅의 개념과 영웅 이야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말해 보게 한다.</li> <li>• 영웅 이야기 주인공의 공통점을 말해 보게 한다. (영웅의 일생 구조 파악하기)</li> <li>• 학습 목표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게 한다.</li> <li>•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안내한다.</li> </ul>					동영상
전개	개별 활동 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를 보며 설화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한다.</li> <li>• 「아기장수 우투리」 설화를 소개한다.</li> <li>• 내용 확인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책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li> <li>•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말해 보게 한다.</li> <li>• 영웅 이야기 주인공의 일반적인 특징과 우투리의 삶을 비교하며 정리하게 한다. (교과서 166쪽 학습활동 1번)</li> <li>• 이 이야기가 일반적인 영웅 이야기와 달리 비극적인 정서를 지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 발표하게 한다. (교과서 116쪽 학습활동 2번)</li> </ul>					PPT 1차시 활동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PT를 통해 형성평가를 풀어보도록 한다. (3문항)</li> <li>• 다음 시간에는 신문에 대해 알아볼 것임을 알린다. 신문기사의 구조와 만화의 특징을 알아 오도록 한다.</li> <li>• 2절지 두 장을 보여주고 제작할 신문의 크기를 파악하게 한다.</li> <li>• 인사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li> </ul>					PPT 전지

이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정리 활동으로 형성평가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문제지는 교사가 미리 학습지로 제공하거나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시각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이

다. 단원 형성평가는 읽기 중 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다. 독서 수업에서는 평가 문제를 풀게 해결하게 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책 내용에 대한 감상을 함께 나누면서 교사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활동 계획하기

<표 11> 교수·학습과정안 2차시

지도 일시	년 월 일	대상	중 2	장소	도서실	지도교사	○○○
대 단 원	4.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	소단원	(3) 아기장수 우투리	쪽수	p.157~165	차시	2/7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써 신문의 기능을 알고 말할 수 있다.</li> <li>◦ 신문 지면의 구성 요소를 찾아 표시하고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li> </ul>						

학습 단계	학습 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li> <li>· 「아기장수 우투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이유와 함께 말해 보게 한다.</li> <li>· 브레인스토밍으로 신문이란 무엇인지 말해 보게 하여 신문의 역할을 정리하게 한다.</li> <li>· 학습 목표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게 한다.</li> <li>·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안내한다.</li> <li>- 신문 나누어 주기</li> </ul>	신문 주의사항 신문보관 및 정리
전개	모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누어 준 신문을 넘기며 관심을 끄는 기사를 찾아 말해 보게 한다.</li> <li>· 사람들이 신문을 보는 이유를 말하도록 하여 신문의 기능을 알게 한다.</li> <li>·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정리하게 한다.</li> <li>· PPT 자료를 통해 신문 지면의 구조와 구성 요소의 명칭을 파악하게 하고 신문 지면에 직접 구분 표시를 해 보게 한다.</li> <li>· 신문 구성 요소의 특징을 확인한다.</li> <li>· PPT 자료를 참고하여 신문 제작 과정을 안내한다.</li> </ul>	싸인펜, A4용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에 사용했던 신문과 물건들을 정리하도록 한다.</li> <li>· 활동 일지를 쓰게 한다.</li> <li>· 다음 시간에는 「아기장수 우투리」 이야기로 기사문과 만화 그리기 활동할 것임을 알린다. 만화의 특징을 알아오게 한다.</li> <li>· 인사하기</li> </ul>	주의사항 신문보관 및 정리

바람직한 독서 활동은 책에서 얻은 교훈이나 감상 등을 내면화하는 데 있다. 독서를 통한 경험은 간접적인 것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면화되기 쉽지 않다. 한편 신문은 실제 사회의 현상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담아낸 시사글 모음집이다. 독서신문 만들기는 독자의 독서 경험을 신문의 구성과 표현 형식에 적용시켜 나타내보는 재구성 활동이다. 학생들은 책 속의 사건이 실제 본인이 직접 겪었거나 가까운 주변 인물에게 일어났다고 여기며 신문의 내용을 구성해내게 된다.

독서 교육에서 독서 경험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책을 읽고 난 뒤에 느끼는 감상을 구체화 시키려면 책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 구체화되지 않은 느낌이나 감상은 쉽게 잊히고 만다. 책을 읽는 행위는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작업이기도 한다. 독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력과 판단력 그리고 표현력 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태도와 습관 그리고 가치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4> 신문 이해하기 PPT

### 신문에 대해 알아봅시다

- ▶ 신문이란?
- ▶ 신문의 구조
- ▶ 신문의 기능
- ▶ 신문 제작

### 학습 목표

- ▶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신문의 기능을 알고 말할 수 있다.
- ▶ 신문의 구성 요소를 알고 그 특징을 말할 수 있다.

### 신문이란

- ▶ 여행
- ▶ 만남
- ▶ 사람

?

### 신문의 종류

- ▶ 내용에 따라
- ▶ 발행하는 곳에 따라
- ▶ 나오는 간격에 따라

### 신문의 4대 기능

1. 보도기능
2. 교육기능
3. 오락기능
4. 광고기능

### 신문의 내용 구성

- ▶ 기사
- ▶ 사진
- ▶ 칼럼
- ▶ 만화
- ▶ 독자투고
- ▶ 광고
- ▶ 인터뷰
- ▶ 사설
- ▶ 기타

### 신문 제작

```

    graph TD
      A[교열] --> B[화상제작]
      B --> C[취재]
      C --> D[편집]
      D --> E[조판]
      E --> F[인쇄]
      F --> G[발송]
      G --> H[독자]
    
```

### 신문의 구조

종류	종류	종류
정인일	정비(신문 발행)	정인일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12면

3) 탐구 및 표현하기

<표 12> 교수·학습과정안 3차시

지도 일시	년 월 일	대상	중 2	장소	도서실	지도교사	○○○
대 단 원	4.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	소단원	(3) 아기장수 우투리	쪽수	p.157~165	차시	3/7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의 사건으로 기사문을 쓸 수 있다.</li> <li>◦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화로 표현할 수 있다.</li> </ul>						
학습 단계	학습 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li> <li>· 다시보기 영상을 참고하며 「아기장수 우투리」의 줄거리를 말해 보게 한다.</li> <li>· 신문의 구성 요소를 말해 보게 한다. (기사, 만화, 광고, 사실 등)</li> <li>· 학습 목표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게 한다.</li> </ul>					두산동아 출판사 학습자료 - CD
전개	모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기장수 우투리」의 사건을 정리하게 한다.</li> <li>· 사건의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토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발표하게 한다.</li> <li>· 기사문 쓰는 방법을 설명한다.</li> <li>·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사건을 보도하는 기사를 써보게 한다.</li> <li>· 만화 그리는 방법을 설명한다.</li> <li>· 시대적·사회적 특징이 잘 드러나게 만화로 표현해 보게 한다.</li> <li>· 완성된 작품을 발표하고 활동 소감을 말하게 한다.</li> </ul>					싸인펜, A4용지  주의사항: 신문 정리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 일지를 쓰게 한다.</li> <li>· 다음 시간에는 「아기장수 우투리」 이야기로 인터뷰 역할극을 할 것임을 알린다. 인물에게 묻고 싶거나 궁금한 점을 생각해 오게 한다.</li> <li>· 인사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li> </ul>					

독서신문에 들어갈 구성요소를 형식과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한 후 「아기장수 우투리」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나 감상을 기사나 만화로 표현하게 하였다. 활동을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아래 <표 13> 기사문 쓰기와 <표 14> 4컷 만화 그리기 활동 틀을 제시하였다.

<표 13> 기사문 쓰기

표제:		
부제:		
요 약 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본 문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골라 육하원칙에 맞게 정리하게 한다. 이러한 틀은 학생들이 기사문 쓰기에 갖는 부담감을 덜어주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육하원칙의 요소 중에 표제나 부제, 본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한두 가지는 빼고 쓸 수도 있다.

<표 14> 4컷 만화 그리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골라 4컷 만화로 그려보자.

1	줄거리 정하기 - 제목 정하기
2	인물 캐릭터 정하기
3	장면 나누기
4	각 칸에 들어갈 내용 정하기
5	그림 완성하기
6	말주머니 채우기

제목 :		
장면	만화 줄거리	만화
1		
2		
3		
4		

한 편의 만화는 그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와 같다. 독서한 내용을 4컷 만화로 표현해보는 활동은 학생들에게 요약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표 15> 교수·학습과정안 4차시

지도 일시	년 월 일	대상	중 2	장소	도서실	지도교사	○○○
대 단 원	4.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	소단원	(3) 아기장수 우투리	쪽수	p.157~165	차시	4/7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게 역할극을 할 수 있다.</li> <li>인물의 인터뷰 기사를 쓸 수 있다.</li> </ul>						

학습 단계	학습의 흐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li> <li>「아기장수 우투리」와 같은 영웅설화가 생겨난 이유를 말해 보게 한다.</li> <li>시대적·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말해 보게 한다.</li> <li>인터뷰를 위한 질문과 인물의 대답 내용에 주의하도록 하며 인터뷰 동영상 시청하게 한다.</li> <li>인터뷰를 통해 인물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인지 말해 보게 한다.</li> <li>가장 인상적인 질문/ 대답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말하게 한다.</li> <li>인터뷰에 어울리는 제목을 말해 보게 한다.</li> <li>학습 목표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게 한다.</li> <li>지난 수업과 연결하여 전체 수업의 흐름을 안내한다.</li> </ul>	김연아 인터뷰 동영상 (3분 51초)
전개	모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기장수 우투리」의 인물들의 성격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말해 보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나 근거를 들게 한다.</li> <li>인물과 관련된 그림(물건)을 골라 역할을 맡게 한다.</li> <li>인터뷰 역할극을 준비하게 한다.</li> <li>각 모둠이 어떤 인물을 인터뷰하고 싶은지 정하게 한다.</li> <li>활동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게 한다.</li> <li>모둠 토의·토론을 통해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게 한다.</li> <li>역할을 맡은 모둠에게 질문하며 인터뷰를 시작한다</li> <li>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인터뷰 기사를 완성한다.</li> <li>정리한 내용을 발표하게 한다.</li> <li>인물이나 사건을 비평하는 글을 쓰면 칼럼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li> </ul>	인물 그림이나 인물을 상징하는 물건  싸인펜, A4용지  주의사항 : 신문 정리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 일지를 쓰게 한다.</li> <li>다음 시간에는 사실 쓰기와 광고문을 만들 것임을 알린다.</li> <li>신문을 꾸밀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li> <li>인사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li> </ul>	

인터뷰는 기사의 중심인물에게 어떤 뉴스에 대한 생각을 듣거나 인물 자체를 탐구하는 일이다.<sup>67)</sup> 여기서는 학생들에게 「아기장수 우투리」의 작중 인물 역할을 주고 가상 인터뷰를 하게 하였다. 모름마다 인물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정리하게 하여 역할을 맡은 인물에게 직접 질문해 보게 한다. 이때 교사는 질문 내용이 ‘예’나 ‘아니’라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인물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질문한 내용을 확대하거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은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예상해 보거나 이야기 속 상황을 추측해 보게 된다.

학생들은 작중인물 역할을 맡으면서 인물의 성격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질문이나 답변을 준비하면서 시대적·사회적·문화적으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학생들이 질문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점차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 인물 인터뷰 역할극은 인물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한다. 교사는 인터뷰와 관련된 신문기사나 동영상 자료를 보여줄 때 사진이나 그림 등 시각자료를 넣으면 작성한 내용에 현실감을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

67) 이태종(2006), 앞의 책, P.94.

<표 16> 교수·학습과정안 5차시

지도 일시	년 월 일	대상	중 2	장소	도서실	지도교사	○○○
대 단 원	4.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	소단원	(3) 아기장수 우투리	쪽수	p.157~165	차시	5/7
학습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유와 근거를 들며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li> <li>이야기를 읽고 시대적·문화적 상황에 어울리는 광고문을 만들 수 있다.</li> </ul>						

학습 단계	학습 의 흐름	교 수 · 학 습 활 동	자료 및 유의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사하고 출석을 확인한다.</li> <li>「아기장수 우투리」에서 백성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게 한다.</li> <li>백성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말해 보게 한다.</li> <li>학습 목표를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게 한다.</li> <li>지난 수업과 연결하여 전체 수업의 흐름을 안내한다.</li> </ul>	
전개	모둠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시간에 쓴 글을 바탕으로 인물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게 한다.</li> <li>만약 내가 인물 중 한 사람이라면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게 하고 발표하게 한다. (임금, 신하, 백성, 부모, 우투리)</li> <li>임금이 잘못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모둠 토론을 하도록 하고 모둠에서 정리된 의견을 발표하게 한다.</li> <li>백성들이 원하는 지도자 또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일지 이유와 함께 말해 보게 한다.</li> <li>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며 ‘바람직한 지도자란’이라는 주제로 주장하는 글을 쓰도록 한다.</li> <li>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광고 문구를 만들어 보게 한다.</li> </ul>	싸인펜, A4 용지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을 그려낸 동영상을 보여준다.</li> <li>동영상을 감상하고 진정한 영웅이란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게 한다.</li> <li>활동 일지를 쓰게 한다.</li> <li>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활동으로 신문 만들기를 할 것임을 알린다.</li> <li>지금까지 쓴 글을 참고하여 모둠 신문을 만들어 볼 것임을 알린다.</li> <li>신문을 꾸밀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직접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li> <li>인사하며 수업을 마무리한다.</li> </ul>	‘ I was here’ 비운재의 유엔 총회장 공연 동영상 (3분4초)

<표 17> 교수·학습과정안 6차시

지도 일시	년 월 일	대상	중 2	장소	도서실	지도교사	○○○
대 단 원	4.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	소단원	(3) 아기장수 우투리	쪽수	p.157~165	차시	6/7
학습 목표	° 역할을 나누어 독서신문을 만들 수 있다.						

신문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맡아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반복된 독서활동으로 내용 이해가 된 상태이고 글쓰기를 직접 해보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작품 이해와 적용을 거쳐 표현 활동 과정에서 감상을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4) 정리 및 평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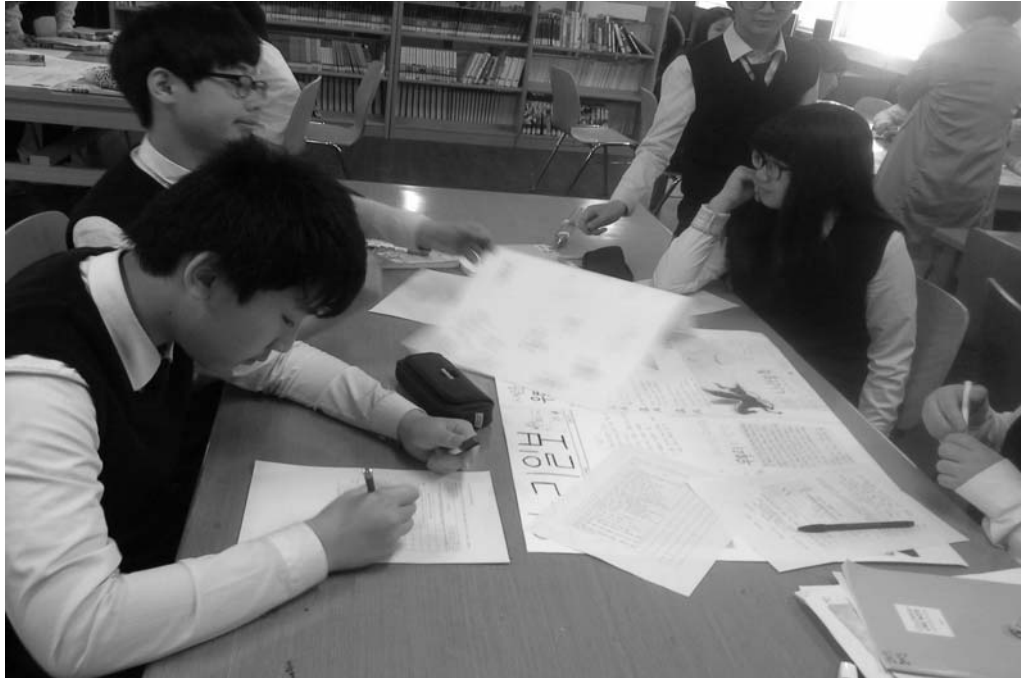
<표 18> 교수·학습과정안 7차시

지도 일시	년 월 일	대상	중 2	장소	도서실	지도교사	○○○
대 단 원	4.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	소단원	(3) 아기장수 우투리	쪽수	p.157~165	차시	7/7
학습 목표	° 완성된 신문을 평가하고 평가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완성된 신문을 모둠 책상에 펼쳐놓게 한다. 가장 먼저 모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서로 교환하게 하였다. 모둠 내에서 평가가 끝나면 신문을 전시하거나 책상에 펼쳐 둔 채 돌아가며 다른 모둠의 작품을 감상하게 한다.



<그림 5> 모둠평가 활동



독서신문 평가서

2학년 ( )반 ( )모둠 신문사

<모둠 외 평가 기준> 1. 기사가 다양하고 내용이 풍부한가? (5점)  
 2. 신문사의 창의성이 돋보이는가? (3점)  
 3. 깔끔하고 보기 좋게 편집되어 있는가?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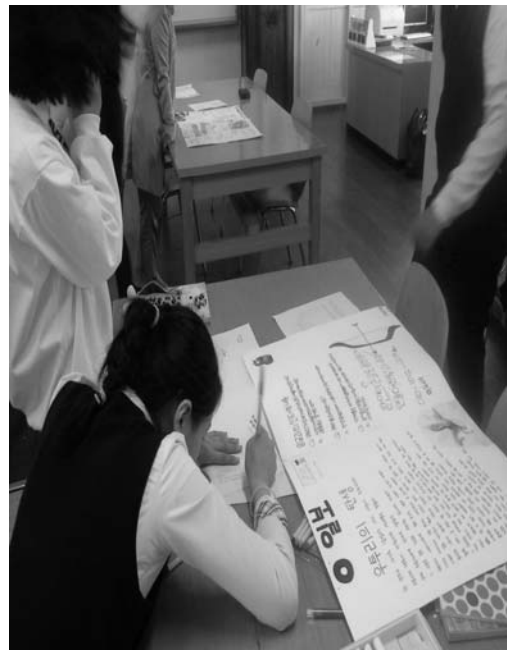
\* 평가 기준 점수를 참고하여 신문의 내용·창의성·편집 점수를 매겨보세요.

평가 받은 모둠 이름	해주고 싶은 말	내용	창의성	편집
합 계				

<모둠 내 평가 기준> 정해진 시간에 제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 기사 내용을 많이 썼는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했는가, 협동에 도움이 되었는가, 신문이 완성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 했는가 등을 생각해 보세요.

이름	평가 내용
(예) 홍길동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만들기 활동은 제대로 하지 않음

<그림 6> 상호평가 활동



한 작품마다 5분 정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모둠원의 의견을 모으게 한다. 작품의 내용과 창의성 그리고 편집된 모양이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알맞은 점수를 기록하게 하였다.

활동을 담당한 교사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1~2명의 심사위원을 초청하여 교사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를 마친 교사는 학생들의 평가서를 바탕으로 작품을 배열하고 각각의 점수에 대한 이유를 말하게 하였다. 학생 평가가 모두 끝나고 교사들의 심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심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낸 교사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팀에게 상품을 전달하였다. 학교의 2학년 담당 국어교사는 학생들이 제출한 작품을 독서수행평가 과제물로 인정해 주기로 하였다.

상호평가 과정에서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감상을 공유하게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작품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은 교사의 심사평에 동의와 거부를 표현하면서 인정과 수용의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평가 과정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 교실 내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2. 과정 및 결과 분석

책 속의 의미를 신문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이야기 속 가상세계를 실제세계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신문 형식으로 완성된 작품은 다른 독후활동과 비교할 때 전시 효과가 뛰어나다. 걸로 드러나는 시각적인 특징은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또 다른 성취감을 안겨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안한 교수·학습과정안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관찰하였다. 신문 만들기 활동이 시작되자 교사는 각 모둠의 진행 상황을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 모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하였다. 대화를 시도하고 질문을 하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나 단서를 제공하고자 했다.

신문을 뒤적이며 신문 이론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은 기사 배치와 기사의 구성 그리고 광고 문구 등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며 활동한다고 여겨졌다. 신문에서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오려내어 관련 사진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모둠들과 상호평가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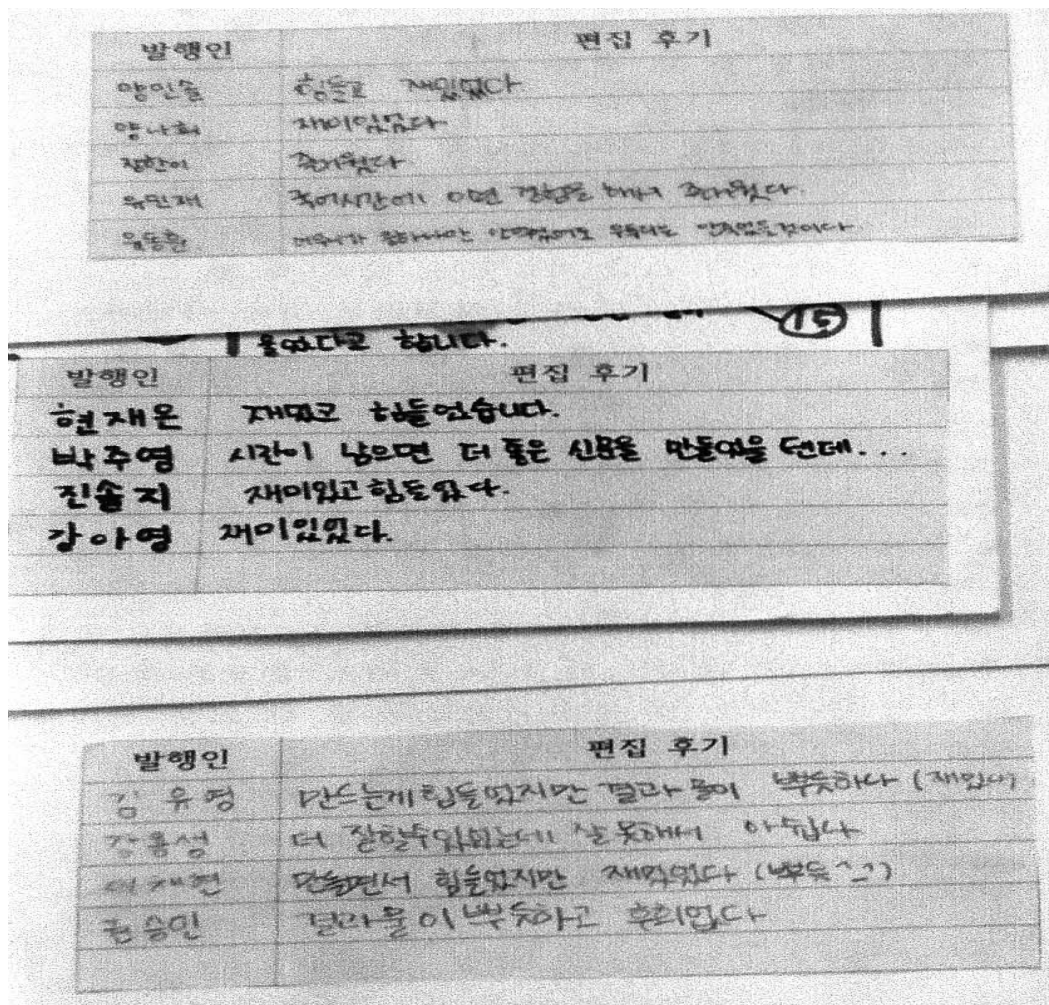
때 신문 자료에 의존도가 높은 신문은 내용의 충실함에 상관없이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활동의 주체가 되어 신문을 만든 학생들은 창의성보다는 동료들이 노력한 정도에 높은 점수를 준다고 여겨졌다.

<그림 7> 활동 결과물



편집회의 이후 교사는 학습 분위기에 신경을 쓰며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였다.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활동에 집중하였다. 학생들의 활동 내용은 작품의 수업목표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시대적 특징과 인물의 심리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신문 제작을 마친 학생들에게 편집후기를 쓰게 하여 스스로 활동을 정리해보게 하였다. 편집후기는 한 문장이나 두 문장으로 정리하도록 하여 활동을 마친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 학생들은 아래 <그림 8>에서와 같이 활동하면서 느끼는 일반적인 생각을 정리하거나 <태빈귀염신문> 학생들처럼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림 8> 독서신문 편집후기



<태빈귀염신문>

- 우투리에 대해 알게 되었다.(조○○)
- 아기장수 우투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김○○)
- 쉽게 이해되고 재미있었다.(김○○)
- 아기장수 우투리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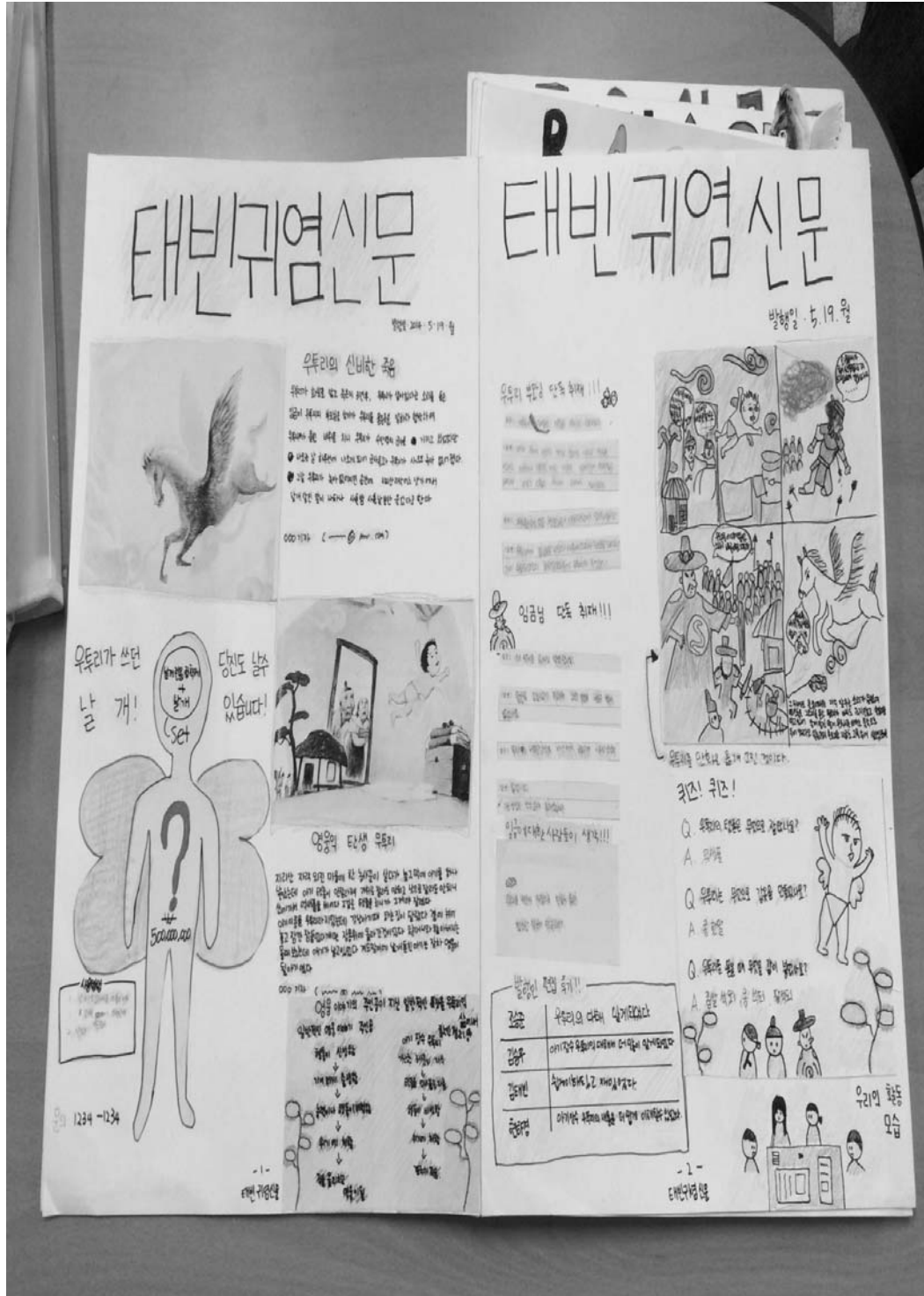
신문의 수준이나 완성도와 상관없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편집후기를 참고하면 대부분 '힘들지만 재미있었다'는 공통된 반응을 보였다. '힘들다', '뿌듯하다' 등의 표현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경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학생들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활동 시작 전에 활동일지를 나누어주며 학생들에게 작성해 보게 하였지만 활동 때마다 정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듯하였다. 모둠을 구성할 때 모둠 내에서의 역할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 활동 중에도 교사는 학생이 담당하는 역할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그 내용들을 모아 신문 구조와 목적에 맞게 배치하는 과정에서 신문 전체의 모습을 고려하며 의견을 주고받았다. 활동하는 동안 학생들은 책 내용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수업에서 다룬 설화 작품을 현대의 신문으로 재구성하면서 당시의 사회제도나 생활 모습 등 시대적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여기서는 신문 1면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활동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문의 1면은 가장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기사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작품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할 때 신문 1면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기도 한다. 작품의 주제뿐 아니라 모듬의 특성이 드러나는 장이기도 하다.

<그림 9> 독서신문 1면



# 주성익의 징상인물 인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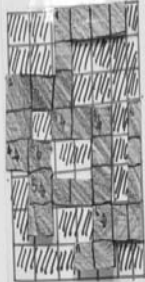


## 아기장수 투리

투리가 기어온 흉악한 임금이 권세를 휘둘러 죽인 투리. 투리는 기어올라 불사할만큼. 투리가 불꽃을 던지면 무너져나가는 돌은. 돌은 살아있는 투리. 투리가 불꽃을 던지자. 돌은 결국 그 돌을 깨고. 투리가 기어올라 흉악한 임금을 죽이고. 투리는 살아남았다. 투리는 살아남았다. 투리는 살아남았다.



## 가로 세로 퀴즈!



- 가로
1. 바닷물을 끓여서 마실 때
  2. 예쁜이 슬고 집안장
  3. 바나나 그루에 달린 푸른 열매
  4. 바나나
  5. 천천히 가만히 움직이는
  6. 열매를 꺾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
  7. 열매를 꺾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
- 세로
1. 10000 원
  2. 20000 원
  3. 30000 원
  4. 40000 원
  5. 50000 원

##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하여가

##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단심가

## QUIZ Time!! (임금님 ver)

- Q. 와 투리를 찾아주세요??  
A. 임
- Q. 와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하려 했어?  
A. 금
- Q.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  
A. 니

## 책 추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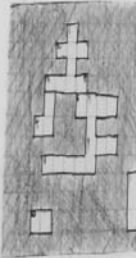
1. 아기장수 투리
2. 나쁜이
3. 꿈꾸는 다락방
4. 뽕깎이
5. 화교의 다짐
6. 신
7. 굶의 제국
8. 내 앞도살 하나 세물 가해
9. 불법사건
10. 아난지, 아난지



# 우리일보



## 십자말놀이



<새>

1. 새의 알은 무엇인가?
2.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3.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4.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5.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6.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7.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8.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9.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10. 새의 알을 낳는 동물은?

<원>

1.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2.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3.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기호는?
4. 원의 반경을 나타내는 기호는?
5. 원의 지름을 나타내는 기호는?
6.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7.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8.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9.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10.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 우리의 구세주

### 우리의 탄생

우리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 새로운 유망주, 우투리의 죽음



우리는 새로운 유망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투리의 죽음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나라보마

나라보마의 가격: 230,000 → 199,900

나라보마의 특징: 빠르고 튼튼하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YOU 신문

본 신문  
발행인: 김민준  
발행처: 제주대학교  
발행일: 2014. 10. 14

### 인터뷰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내용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인물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인물에게  
말씀! 인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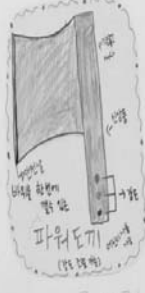
### 인물에 대한 생각

인물에 대한 생각  
-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 인물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인터뷰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하는 거야!

## 인물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 ### 대우원의 꿈
- 많은 사랑을 받는다
  - 모두가 함께 웃는다
  - 모두가 함께 성장한다
  - 모두가 함께 행복해진다
  - 모두가 함께 꿈을 꾸는다
  - 모두가 함께 사랑을 나누는다
  - 모두가 함께 사랑을 받는다
  - 모두가 함께 사랑을 준다

## 우리만의 문화

(이제 모두 우리)  
우리는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인가?  
-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인가?  
-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인가?  
-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무엇인가?



- ###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1.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2.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3.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4.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5. 우리가 생각하는 인터뷰는?



학생들의 만든 작품을 살펴보면 신문 이해 수업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기사의 위치를 신문 1면에 배치한 경우가 많다. 신문에 대한 이해가 덜 된 반이나 모둠에서는 주요 기사보다는 광고나 만화 등을 1면에 배치하여 예상 독자의 시각을 사로잡거나 재미를 주고자 하였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신문매체 본래의 역할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완성된 신문을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들은 신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색을 사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글자나 그림의 크기를 조절해가며 적극적으로 신문을 꾸미는 것을 보며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키울 수 있는 학습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규칙이나 제약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여겨졌다.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독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과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했지만, 적용한 작품 수와 적용 기간이 짧아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여겨졌다. 이 글에서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문 이해 과정이 학생들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19> 활동평가 설문지(68)

아래 항목은 독서신문 제작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표 해 주세요.

영역	번호	설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활동의 적절성	1	이 활동은 내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2	이 활동은 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3	이 활동을 통해 소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4	이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5	이 활동으로 다른 소설 작품을 공부하고 싶다.					
인지적 효과	6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7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8	이 활동을 통해 모둠 구성원들과 토의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9	이 활동은 소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의적 효과	10	이 활동을 통해 소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였다.					
	11	이 활동을 통해 소설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2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종류의 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13	이 활동은 소설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주었다.					

68) 조혜숙(2005),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표 20> 활동의 적절성

반	번호	설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	이 활동은 내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33.0	50.0	16.7	0	0
	2	이 활동은 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8.3	41.7	41.7	8.3	0
	3	이 활동을 통해 소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25.0	45.8	29.2	0	0
	4	이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25.0	41.7	33.3	0	0
	5	이 활동으로 다른 소설 작품을 공부하고 싶다.	12.5	50.0	37.5	0	0
2	1	이 활동은 내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12.5	41.7	41.7	4.2	0
	2	이 활동은 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8.3	29.2	41.7	20.8	0
	3	이 활동을 통해 소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8.3	12.5	66.7	4.2	8.3
	4	이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8.3	16.7	62.5	4.2	8.3
	5	이 활동으로 다른 소설 작품을 공부하고 싶다.	8.3	8.3	66.7	8.3	8.3
3	1	이 활동은 내가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이었다.	28.0	44.0	28.0	0	0
	2	이 활동은 내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28.0	32.0	36.0	4.0	0
	3	이 활동을 통해 소설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	40.0	36.0	20.0	0	4.0
	4	이 활동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	32.0	40.0	24.0	4.0	0
	5	이 활동으로 다른 소설 작품을 공부하고 싶다.	40.0	20.0	24.0	12.0	4.0

활동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 내용에 대해 1반과 3반 학생들은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것보다 높았다. 그러나 2반에서는 ‘보통이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높다. 학생중심의 학습 구조와 활동에 대한 이해가 이러한 결과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 활동의 인지적 효과

반	번호	설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6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33.3	54.2	12.5	0	0
	7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29.2	45.8	25.0	0	0
	8	이 활동을 통해 모둠 구성원들과 토의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41.7	54.2	4.2	0	0
	9	이 활동으로 다른 소설 작품을 공부하고 싶다.	37.5	45.8	16.7	0	0
2	6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8.3	20.8	54.2	16.7	0
	7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8.3	29.2	41.7	20.8	0
	8	이 활동을 통해 모둠 구성원들과 토의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8.3	25.0	50.0	12.5	4.2
	9	이 활동으로 다른 소설 작품을 공부하고 싶다.	8.3	25.0	66.7	0	0
3	6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읽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32.0	36.0	28.0	4.0	0
	7	이 활동을 통해 나는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	32.0	36.0	32.0	0	0
	8	이 활동을 통해 모둠 구성원들과 토의하는 능력이 길러졌다.	36.0	28.0	28.0	8.0	0
	9	이 활동으로 다른 소설 작품을 공부하고 싶다.	40.0	28.0	28.0	4.0	0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이 활동을 통해 읽기와 쓰기, 토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하였다. 글 이외에도 학생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본다. 활동을 통해 잠재된 끼를 발휘하면서 학생들은 자신감을 얻고 동료들과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 된다.

실험반인 1반과 3반 그리고 비실험반인 2반의 반응에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가 반드시 신문 이해 학습의 적용 유무에 있다고 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교사의 수업계획과 학습과정에 대한 판단이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수업 환경과 학습활동에서 교사가 적용하는 학습과정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표 22> 활동의 정의적 효과

반	번호	설문 내용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10	이 활동을 통해 소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였다.	3.3	54.2	8.3	4.2	0
	11	이 활동을 통해 소설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29.2	45.8	25.0	0	0
	12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종류의 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9.2	50.0	20.8	0	0
	13	이 활동은 소설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주었다.	33.3	41.7	25.0	0	0
2	10	이 활동을 통해 소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였다.	16.7	16.7	41.7	16.7	8.3
	11	이 활동을 통해 소설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12.5	8.3	54.2	12.5	12.5
	12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종류의 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16.7	8.3	54.2	12.5	8.3
	13	이 활동은 소설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주었다.	16.7	12.5	54.2	16.7	0
3	10	이 활동을 통해 소설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하였다.	36.0	44.0	16.0	4.0	0
	11	이 활동을 통해 소설을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44.0	24.0	28.0	0	4.0
	12	이 활동을 통해 다른 종류의 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44.0	24.0	32.0	0	0
	13	이 활동은 소설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 주었다.	48.0	32.0	20.0	0	0

비실험반인 2반에서 조사한 정의적 효과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긍정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험반인 1반과 3반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반응분포의 차이가 확연히 다르다. 신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문 제작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어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1반과 3반의 경우에는 활동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 오히려 작품에 집중할 수 있어서 소설 읽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3> 평가결과 비교

영역	반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활동의 적절성	1	20.8	45.8	31.7	1.7	0
	2	9.1	21.7	55.7	8.3	5.0
	3	33.6	34.4	26.4	4.0	1.6
인지적 효과	1	35.4	50.0	14.6	0	0
	2	8.3	25.0	53.2	12.5	1.1
	3	35.0	32.0	29.0	4.0	0
정의적 효과	1	31.3	47.9	19.8	1.1	0
	2	15.7	11.5	51.1	14.6	7.3
	3	43.0	31.0	24.0	1.0	1.0

신문 이해 과정을 적용한 후 독서신문을 제작한 1반과 3반 학생들은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신문 이해 과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일한 활동을 한 2반 학생들은 두 영역의 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의 반응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차이는 교사의 학습 진행 방법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학생들의 일관된 반응을 바탕으로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신문 이해 학습을 적용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이 실제 독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때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표 24> 평가 비교 분석

영역	긍정적	보통	부정적
활동의 적절성	55.2	37.9	6.9
인지적 효과	61.9	32.3	5.9
정의적 효과	60.1	31.6	8.4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 중 55% 이상이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 활동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소설이나 문학작품을 배우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매체에 대한 이해 학습이 학생들의 읽기·쓰기 능력과 더불어 비판적 창의적 시각을 기르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는 학습활동을 계획할 때 실생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독서지도 전문가들은 독서신문 제작 활동이 학생들의 독서활동에 흥미를 주어 능동적인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독서지도가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 매체로써 신문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 학생들은 신문 제작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무엇을 알릴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지를 먼저 고려하게 되어 활동 중 교사 의존도가 낮았다. 반면 신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학생들은 신문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독서신문 제작은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활동이다. 학생들의 수준이나 작품 수준을 고려하여 진행 과정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평소 읽기와 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신문에 들어갈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신문 구성 요소에 따른 다양한 글쓰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은 신문 만들기에 대한 이해 학습을 통해 자신이 맡은 역할의 의미를 알게 된다. 교사가 학생에게 활동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해 준다면 활동에 대한 학생의 관심이나 흥미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체를 활용하여 수업하고자 할 때 매체 이해 과정을 배경지식으로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교사는 이미 효과가 증명된 교육 방법이거나 인기 많은 학습활동이라 할 지라도 이를 통해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독서신문 만들기 활동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활동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반과 일반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을 적용한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의 결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활동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일반적인 교과 수업과 비교할 때 흥미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학생의 독서 경험을 점수화하고 평가하려는 데 활동의 목적을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

독서교육과 국어교육의 목적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독서교육에서의 활동은 독서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에서의 활동은 학습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결과만을 요구하는 틀에 박힌 독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독서 활동방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 V. 결론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다양한 독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학교나 공공 도서관, 지역의 아동센터 등에서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행사를 마련하여 독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매체로부터 제공되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집중력이나 주의력을 필요로 하는 독서활동을 힘들어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학생들에게 독서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더불어 정보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 방법의 하나로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지도 방안을 구안하였다. 필자는 학생들이 신문의 기능과 매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게 되면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작품을 재구성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읽기·쓰기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구안한 프로그램이 실제 수업에서 적용 가능하지 확인하기 위해 C 중학교 2학년 세 개 학급의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실험반과 비실험반 모두에게 동일한 독서지도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여기에 신문 이해 과정을 학습시킨 반과 그렇지 않은 반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도과정에서 읽기와 쓰기에 곤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 글쓰기 활동을 해가면서 내용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토대로 활동의 적절성과 인지적·정의적 측면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신문 이해 과정을 학습한 반 학생들은 비실험반 학생들과 비교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반과 비실험반 학생들의 결과물을 비교한 바, 주요 기사의 배치나 지면 활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를 신문 이해 학습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것으로 보고자 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매체의 개념과 기능, 특징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매체를 활용한 교육활동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매체와 관련된 교육활동을 계획할 때 매체가 전달하는 가치의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매체의 소통 양상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매체 이해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매체 환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정보를 이용하거나 생산하는 데 필요한 윤리적인 태도를 익힐 수 있게 될 것이다. 매체 이해의 수준은 대

상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교과 학습의 진행 과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게 좋다.

연구에 적용한 작품의 수나 적용 기간의 짧고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검사 도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연구의 타당성을 주장하기에는 이르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활동 결과물과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 매체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개인에게 매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금의 학생들은 매체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매체 환경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일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매체의 사회적 역할이나 기능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독서지도안을 구안해 보았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독서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 문헌

### 1. 자료

이삼형 외, 『중학-국어③』, 단원 4-3, 두산동아.

### 2. 단행본

강인애(2003), 『우리시대의 구성주의』, 문음사.

게리 보리크(Gary D. Borich, 2004), 박승배 외 공역, 『효과적인 교수법』, 아카데미프레스.

김계현 외(2012),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학지사.

김대호(2008), 『미디어의 미래』,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양은(2009),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판수 외(2000), 『구성주의와 교과교육』, 학지사.

박정환 외(2010), 『교직 실무』, 학지사.

박진우(2012), 『한국의 미디어 교육』, 한국언론진흥재단.

배영주(2005), 『자기주도학습과 구성주의』, 원미사.

변영계(2009),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학지사.

손민호(2005), 『구성주의와 학습의 사회이론』, 문음사.

스테파니 매클루언·데이비드 스테인즈 편저, 김정태 옮김(2008), 『매클루언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신종호 외(2012), 『교육심리학 : 교육 실체를 보는 창』, 학지사.

신헌재 외(2001), 『학습자 중심의 국어과 수업방안』, 박이정.

\_\_\_\_\_ 외(2003), 『국어과 협동학습 방안』, 박이정.

\_\_\_\_\_ 외(2004),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

안정임, 전경란(1999),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윤영천(2009), 『문학의 교육 문학을 통한 교육』, 문학과지성사.

- 이경화(2004), 『읽기 교육의 원리와 방법』, 박이정.
- 이병승 외(2011), 『쉽게 풀어 쓴 교육학』, 학지사.
- 이상구(2002),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 \_\_\_\_\_(2006),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 이재현(2013), 『디제라티』,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영규 외(2008), 『독서논술 지도의 방법과 실제』, 정인.
- 전성연 외(2010), 『협동학습 모형 탐색』, 학지사.
- 정기철(2001), 『창의력 계발을 위한 독서지도법과 독서신문 만들기』, 역락.
- 정문성(2006), 『협동학습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 정현선(2004), 『다매체 시대의 국어교육과 문화교육』, 역락.
- \_\_\_\_\_(2004), 『전자매체 시대의 아이들』, 우리교육.
- Judith W. Irwin 저, 천경록·이경화·서혁 옮김(2003), 『독서교육론』, 박이정.
- 천경록 외(2006), 『독서 전략 지도』, 교육과학사.
- 최창섭(1985), 『미디어 교육론』, 나남.
- 황유선(2011), 『NIE와 교육 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재단 연구서.

### 3. 학위논문

- 김영경(2002), 「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지도 방안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진(2005), 「소설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지도 방안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수정(2011), 「독서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교육 향상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종숙(2006), 「독서신문 제작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지경(2013), 「중학생과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인하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민(2007), 「독서신문 활용을 통한 소설 교수-학습 방안 연구」,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영란(2008), 「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지도 방법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숙(2005), 「독서신문 만들기를 통한 소설 교수-학습 방법」,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기타

문화체육관광부(2013), 「201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제2부 설문조사 결과 분석.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to Increase Interest in Books  
through Making Newspaper Activities**

**Kang Eun-A**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ung-Sook**

These days, as many kinds of information media are improved in concert with the needs of their users,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ends to gradually enlarge the scope of using media in helping students understand the context more. The criteria of performance achievement in the area of writing in the 1-3 grade in middle school, revised by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2009 says that it encourages students to write on the basis of their own lives and experiences and to feel how peers respond. Knowing the characteristics of media at the beginning of a class affect the contents and forms of writing. Then, students communicate their own ideas and feelings about articles with one another, form a desirable attitude about using media, and write an article more effectively.

Students are accustomed to using electronic media. They are likely to read particular articles which they are interested in. It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read various books actively in order to acquire information provided by many kinds of

---

※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14.

media.

It is essential to induce the learners' interest in books to establish a right attitude of reading and cultivate a reading ability. Most students are not inclined to pay attention to literature in a regular class, because the class is always linked with an assessment system like a test. Insead, students have to appreciate literature with their own lives and experiences in order to feel interested in literature.

A study of increasing interest in books through making newspaper activities by learners is conducted in this thesis. Until now, most theses hardly use the process of making students understand newspaper traits. But, it is necessary to have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newspapers before making a newspaper by learner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is based on constructivism. Teaching methods of making a newspaper after reading a book is suggested under the theory of cooperative learning to enhanc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and to teach literature effectively after making students understand a newspaper.

Students understand the social roles and functions of a newspaper. They are likely to make an active engagement in making a newspaper.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students' responses after the program of activity of making a newspaper. The positive responses from the survey showed the possibility of this teaching method becoming a concrete plan in a regular class. But, it is not proved that this analysis of questionnaires and the assesment of a book for making a newspaper were performed objectively. In addition, the period of studying was so short that only a book was used to read before making a newspaper and that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effect of this study.

What we expect from teaching literature in a class is as various as how we feel. The first goal of teaching literature for learners is to help them enjoy and understand literature by themselves. Learners would feel the enjoyment of reading literature, if they catch the specific meaning in a given context. Learners can express what they feel and think in various ways after reading literature. The

process of learners' thinking is promoted by the information and knowledge by reading literature and by making a newspaper.

It is natural to pay attention to the new view of constructivism to catch the fast change within our society with the variable qualities of knowledge. It must not disregard the objective view. It is important to find a proper way to match the teaching method with the education purpose.